

KOPEC

F A M I L Y

KOPEC은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화력 발전소를 설계합니다



KOPEC은 800MW, 500MW, 200MW 표준석탄 화력발전소와 열병합 및 복합 화력발전소수집기를 설계하였으며, 최첨단 탈황,탈질 설비를 개발하여 세계 최고의 친환경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KOPEC이 '인간 · 환경 · 기술의 융화' 를 바탕으로 맑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Anytime, Anywhere... *KOPEC is all around you*



영흥화력 발전소

부산북항 화력발전소

보령화력 발전소



KOPEC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www.kopec.co.kr

2005 **3**
통권278호

March

- 3월 1일(1996) 필리핀 말라야화력 1,2호기 성능복구공사기술통역 계약 체결
- 3월 1일(2004) 인도네시아 Bojonegara 복합화력발전소 건설타당성조사용역 계약 체결
- 3월 2일(2001) 우리사주조합 출범
- 3월 4일(2003) 제1회 원자력 안전점 검의 날 창설 행사 및 세미나 개최
- 3월 6일(2002) 수도권 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 종합설 계용역 계약 체결
- 3월 7일(1981) 프랑스 Framatome사와 원자력 9,10 호기 설계용역 참여 계약 체결
- 3월 7일(1986) 한강계 수력발전소 원격제어소 준공
- 3월 7일(2003) 3D CAD 통합모델 검토실 개장
- 3월 12일(2004)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 기공
- 3월 14일(1983) 울진원전 1,2호기 현장설 계용역 계약 체결
- 3월 15일(1983) 미국 Gilbert Commonwealth사와 해외프로젝트참여 계약 체결
- 3월 15일(1991)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2단계 설계기술통역 계약 체결
- 3월 16일(1989)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1단계 설계기술통역 계약 체결
- 3월 17일(1982) 세계동 력회의 한국국 내위원회 가입
- 3월 20일(2002) Westinghouse사와 MOU 체결
- 3월 29일(1995) 영광원전 5,6호기 종합설 계용역 계약 체결
- 3월 30일(2004) 부산복 합화력발전소 2단계 준공
- 3월 31일(1992) 영광홍 농사원아파트 준공
- 3월 31일(1995) 영광원전 3호기 상업운 전 개시

Contents

March 2005

"KOPEC FAMILY"

- 2005년 3월호(통권 278호)
- 발행일 2005년 3월 15일
- 등록일 1983년 7월 20일
- 발행인 임성춘
- 발행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 주 소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360-9
- 전 화 031-289-3114
- 홈페이지 <http://www.kopec.co.kr>
- 인 쇄 길성인쇄(02-2279-8044)

Cover Story

원자로설계개발단 정재천 차장은 본인이 발 명자로 되어 있는 '모터구동 화전기기 온라 인 센서리스 감시 시스템' 특허기술로 한국 일보가 선정한 '제3회 100대 우수특허제품 대상'에서 최우수상인 서울경제신문 사장상 을 수상하였다.



- 4 K-Message |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자
- 6 KOPEC NEWS | 제1차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 개최 외
- 8 새로 읽는 고전 | 「노자」를 다시 읽다보면
- 10 테마기획 - 세계속으로 | 숲과 바다가 어우러진 생태계의 보고, 케언즈
- 14 전환점 | 근대과학의 출발, 뉴턴 물리학
- 16 웰빙 KOPEC | Mr. Beauty를 위한 첫 단계, 봄철 피부 관리
- 18 Teamwork | 울진 5,6호기 원자로계통설계사업팀
- 22 Benchmarking & Globalization | Hartsfield-Jackson Development Program 연수를 다녀와서 외
- 26 Talk & Talk | 별관에 가보니
- 28 KOPEC 서클 | KOPEC 검토회
- 30 KOPEC 문예 | '유성' 외
- 34 우리가족 만세 | 환경기술실 박성우 과장 가족
- 36 지상전시회 | 고향으로 돌아온 박수근의 작품들
- 38 건강 100세 | 잠 못이루는 밤이면
- 40 Radar | 원자력통제법 제정 추진 외
- 42 InsideOutside | 서클동정 외
- 43 책 읽어주는 남자 | 거대 중국과의 대화
- 44 Information | 영화 '마파도' 외
- 46 퀴즈한마당 | 틀린그림 찾기 외
- 47 밑줄긋기 | 만남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자



세계일류기업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지만, 가장 간단하며 대부분이 수용할 수 있는 정의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실현해 나가는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언뜻 간단해 보이지만, 급격한 경영환경의 변화 속에서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89년도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중 현재에도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5개 기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15년이 채 흐르기도 전에 전체 절반의 기업이 경쟁에서 탈락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세계일류기업이란 기본적으로 경영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전사적인 가치활동의 효율화와 극대화를 달성함으로써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성장을 위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관성이란 말이 있다. 조직이 새로운 변화에 저항하면서 익숙하고 편안했던 과거로만 회귀하려는 성질을

말한다. 변화의 시대에 과거의 경영 방식에 대한 집착으로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조직은 발전하기 어렵다.

지금처럼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유지하고 소유하려는 생각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이다. 낡은 것, 지나간 것들을 지속적으로 버리지 않고서는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마인드를 확보할 수 없으며 결국 변화에의 적응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어떤 기업도 현재 그 기업이 처한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고 환경의 새로운 변화를 알지 못하면 결국에는 보다 더 민첩한 경쟁자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기 마련인 것이다.

우리는 좋아하던 싫어하던, 그리고 변화에 잘 적응하던 그러지 못하던 지속적이고 가속화하여 가는 변화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변화를 수용하고 혁신을 주도하려는 열정과 의지를 무기로 삼아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아내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10년전쯤 한 기업의 총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그 기업의 총수는 5~6년쯤 지나 이렇게 주문한다.

“이젠 아내와 자식만 빼고 다 버려라.”

그리고 그 기업의 총수가 바로 얼마 전쯤에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

“10년 뒤에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고민해라.”

10년이 지난 지금 이 기업은 브랜드 가치에서만 세계 5위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고, 지난 연말에는 순이익 100억달러 클럽에 가입하면서 다시 한번 성공모델로 전 세계 기업들의 부러움을 샀다. 바로 10년전 이 기업에 대한 세계 시장에서의 이미지가 그저 그런 값싼 제품을 만드는 회사였음을 감안하면 말 그대로 놀라운 성공신화이다.

이 회사는 지금 사상 최대의 순이익 등 성공신화에 흠뻑 도취될 만도 하건만 여전히 “가장 좋은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며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지금의 상승세를 이용해 역

량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리지 못하면 어렵게 쌓은 그동안의 성공을 이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기업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간단하다. 세계 1등을 하고 경영시스템이 세계일류기업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본래의 통념을 거부하고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우리회사는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미래에 대한 열정과 희망 하나만으로 세계적인 회사로 키워온 우리 모두의 지력에 흠뻑 도취될 만도 하지만, 그러기에는 우리 미래 환경이 그리 간단치가 않다.

설계시장의 전면적 개방과 전력정책의 방향 급변 등 생존적 차원의 경영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30년동안 정부주도의 기술자립정책으로 비약적인 도약이 가능했다면 이젠 우리 스스로 시장을 개척하고 사업을 다변화 할 수 있는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할 획기적인 방향 전환의 시도가 필요하다. 아울러 새로운

경영환경에 맞도록 조직·인력운영·경영관리 등 시스템 전반에 걸친 과감한 체질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같은 변화요구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부 구성원들의 의식 변화가 필수적이다. 버리고 깨는 노력을 하면서 내부 구성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전 구성원이 위기의식을 갖고 환경변화를 감지하면서 ‘성장 재창조’를 위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해나가야만 성장함정에 빠지지 않고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기업의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순간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다.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지만, 환골탈태하면 새로운 지평을 열수 있다.’ 한 세대를 정리하고 또 다른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 우리 KOPEC인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유선용 / 기획처장



KOPEC NEWS

200503

제1차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 개최



2005년도 제1차 임시주주총회가 지난 2월 28일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에는 전덕수 이사선임(안)이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다. 이어 제1차 이사회에서는 제30기 결산(안) 외 2건이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다.

지식경영(KM) 활동 우수 그룹(직원) 포상



2004년 지식경영(KM) 활동 우수 그룹(직원)에 대한 포상이 2월 1일 경영회의의 석상에서 있었다. 2004 각 분야별 지식활동 평가는 제1차 평가(전산 시스템에 의한 정량적 평가)와 제2차 평가(기술심의회위원회의 정성적 평

가)를 거쳐 엄정하게 수상 그룹(직원)을 선정하였다. 분야별 수상내역은 우수스터디그룹상에 발전소배치그룹·건축계획그룹·인간공학그룹이, 우수지식전문가상에 건축기술처 최승호 부장·품질보증처 이철우 부장이, 우수지식등록자료상에 배관기술처 이재규 부장·토목기술처 문일환 차장·윤창학 과장이, 연간 최고지식 마일리지상에 배관기술처 양인수 과장외 4명이, 누적지식마일리지상에 19명이 선정되어 표창장과 함께 상금, 상품권, 관광카드 등 다양한 부상을 받았다.

원자력사업사업단 운영방침 설명회 개최



원자력사업사업단은 지난 1월 31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6층 강당에서 원자력사업단 소관용역 직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운영방침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한기인 원자력사업단장은 세계적인 일류 EC회사가

되려면 혁신하는 KOPEC, 도약하는 KOPEC이 되어야 한다면서 올해는 원전설계품질제고, 조직운영 효율성 제고, 가동원전사업 활성화, 기술개발 투자확대, 해외사업개발 적극추진, 대국민 원전 홍보강화를 업무추진 목표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탄력적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미래지향적 사업개발 및 기술개발 투자를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플랜트사업단 업무계획 설명회 개최



플랜트사업단은 지난 2월 2일 오후 3시부터 6층 강당에서 사업단 전직위자를 대상으로 2005년 업무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플랜트사업단장의 인사말에 이어 박해조 용역A그룹장, 이옥재 용역B그룹장, 유만호 건설사업관리실장이 차례로 각 그룹의 2005년 사업 및 사업개발 목표에 대한 포부를 밝혔고, 이배수 사업개발처장이 사업단

전체의 2004년 실적 및 2005년 계획을 설명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그동안 사업단 실적 달성을 위해 애쓴 직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사업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는 자리라는 데 의의가 있다.

클린카드제도 전면 실시

3월 1일부터 회사법인신용카드 사용시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이발소, 안마시술소 등 특정업소에서의 사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클린카드제도를 도입하여 전면 시행한다. 클린카드제도의 도입으로 내부적으로는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직원들의 윤리 의식 및 회계질서를 확립하여 윤리경영 확산에 기여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경비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대외신인도 제고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월성 1,2호기 조기착공 지원 산행 실시

신월성 1,2호기 PM/APM과 한수원 및 관련사 직원 29명은 지난 2월 19일 태백산 천제단에 올라 신월성 1,2호기 건설사업 조기 착공 지원제 행사를 실시하였다. 신월성 1,2호기 건설



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번 산행은 이어진 폭설과 세찬 눈보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무사히 등반을 마치고 각사간의 화합을 다지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플랜트사업단 영업전략회의 개최



플랜트사업단에서는 지난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안면도 롯데오션캐슬 리조트에서 단장 및 대형사업 PM이 참석하는 영업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외부환경 및 신성장동력에 부합하는 사업개발방안'이라는 주제 아래 열린 이번 회의는 브레인스토밍 형식으로 진행되어, 열띤 토의와 새로운

아이디어가 속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사업개발방안은 기능별로 특화된 그룹별 사업개발조직의 구성, 비한전 사업주·고객과의 유대관계 강화, 직원의 사기진작 및 사업개발 MIND 강화, 경쟁입찰 관련 사업수행 절차 개정 등이다.

남아시아 지진해일 구호성금 기탁

남아시아지역을 강타한 지진해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남아시아 이재민을 도우려고 지난 2월 7일 대한적십자사에 1,000만원을 기탁하였다. 이번 구호성금은 임직원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모금하였다.

울진 1,2호기 설계특성 검토결과 발표

울진 1,2호기 설계특성 검토결과 발표회가 지난 1월 27일 원자력사업단장, 원전 사업책임자 및 기술처장들을 대상으로 3층 통합 호텔실에서 있었다. 설계품질제고추진반에서는 원전 경쟁력제고와 설계 품질향상을 위하여 원전 설계 최적화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랑스의 원전 표준형(CP-2형)인 울진 1,2호기의 설계현황을 검토해 왔다.

「노자」를 다시 읽다보면

김경일 / 상명대학교 중국어문학과 교수



우리 땅 어느 곳의 산이 가장 깊은가? 겨울 소백산이 깊숙하고 여름 지리산이 으스스하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곳들엔 이미 사람들의 몸 내음이 어수선했던 발길과 함께 흩어져 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태고의 숲을 이 땅 어딘가에 간직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지나는 들짐승의 비린내를 단 하나의 향기로 기억하는 들꽃과 들풀들을 남겨둘 도리는 참으로 없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자연을 자연으로부터 몰아내는 장본인으로 '개발'을 지목해 두고 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연을 자연으로부터 몰아내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자연에 대한 우리들의 빗나간 문화 때문이다.

이 말이 조금 어색한 독자들에게는 독특한 집착으로 숲을 뒤져대며 뿌리를 캐고, 꿀을 퍼내고, 짐승들을 숲 밖으로 끌어내는 우리네 먹거리 문화를 떠올려보기 바란다. 야생의 것을 이다지도 허겁지겁 먹어대는 민족 중에 한국인과 중국인이 우열을 다투는 광경은 어지간히 부끄러운 모습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부끄러운 것은 '자연'을 먹어대는 문화와 철학에 오히려 자부심을 느끼는 미성숙이다.

얼핏 알아채기 힘든, 그러나 묘하게 존재하는 우리 사회의 이러한 오해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연을 가장 깊이 설명하고 있는 듯한 노자의 자연관, 이른바 無爲自然(무위자연)의 혼수에서 비롯된다.

작위적이고 인위적인 개입 없이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면

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라는 노자의 자각은, 사실 노자 한 사람만의 삶을 여유롭게 했을 뿐 수많은 동양 사람들의 삶을 궁색함 속으로 몰아넣고 말았다.

이 말도 어색한 독자라면 중국 서북부 지역으로의 배낭여행을 권하고 싶다. 아름다운 물의 철학을 탄생시킨 나라 중국, 그러나 어느 곳에서고 시원한 물 한 모금 구걸하기 힘든 벌판 위에서 지평선을 향해 걷도록 권하고 싶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노자」의 한 구절을 떠올려 보도록 권하고 싶다.

上善若水(상선약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깊은 감화력이란 마치 물과 같아서 온 대지를 적시어도 아무런 자기 수식어를 마련하지 않는다. 또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흐를 뿐 높은 자리 잠시라도 탐함이 없다. 하지만 물이 흐르는 곳엔 생명이 피어나고 그 언저리엔 언제나 생기가 움튼다. 역설의 미학이다. 노자라는 사내가 물을 바라보면서, 또 자연과 인생을 바라보면서 터득한 회심의 너스레가 바로 이 '상선약수'다.

최고 上(상), 좋은 가치 善(선), 닮을 若(약), 물 水(수)로 이루어진 이 네 글자를 들어 사람들은 無爲自然(무위자연)과 함께 흔히 동양인이 찾아낸 최고의 지혜라고 평을 하곤 한다.

노자가 물을 바라보면서 물이 담고 있는 역설의 뿌리를 이토록 말강게 틀어쥐었음은 사실 그렇게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노자의 사생활이나 행방이 묘연해 동서양 많은 학자들

의 추적을 받고 있지만 그가 양즈강 언저리, 그러니까 강남 근처, 다시 말해 물고기와 알코이 넘쳐나는 파스한 대지를 떠돌던 사내라는 것에 대해서만은 크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즉, 늘 풍족하고 비옥한 분위기 속에서 찾아낸 느낌 들인지라 노자의 철학은 어딘가 여유롭고 때론 게을러 보이기까지 한다. 하지만 그가 만일 황허 북쪽 산시(陝西-섬서)의 황토 고원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삶을 꾸려가야 했었다면 '상선약수' 따위의 한가한 소리를 읊조리지는 못했으리라.

타는 듯한 봄 가뭄, 작은 물줄기를 위해 어제까지의 이웃에게 욕설을 퍼부어 대야 하는 여름 맹벌, 그리고 가을, 겨울로 이어지는 삶의 곤고함. 일찍이 펄벅이 「대지」(The Good Earth)를 통해 충분히 들려주었던 처절함은 「중국 기아사」와 같은 기록 속에서 더 적나라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노자가 황허 북쪽의 척박한 땅에서 태어났더라면 그는 아마도 중국판 체 게바라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아니 그의 영민함과 낭만적 기질로 볼 때 그를 넉넉히 능가했을지도 모른다.

쓰나미를 예로 들 것도 없이 물은 착한 구석만 있는 것이 아니다. 노자 식으로 표현해 보면 上惡若水(상악약수)인 셈이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면 물은 착할 것도 악할 것도 없는 존재다. 물은 그저 물일뿐이다. 그 물의 쓰임이 어떠한을 결정짓는 것은 물 그 자체가 아니다. 때문에 물은 지혜의 스승도, 재난의 망나니도 아니다. 물은 오히려 날카로운 지혜로 조심스레 다루어야 할, 인간에게 주어진 심각한 과제일 뿐이다.

결국 물이 그리고 자연이 건네려는 처세의 지혜보다 지혜로운 것이 과학의 냉정함이다. 하지만 많은 동양 사람들의 자연관은 철저하게 노자의 시각에 고정되어 있다. 때문에 노자를 넘어서 또 다른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게 되었다.

자연에 기대어만 있으면 자연은 그 사람들에게 자연의 냉혹함을 가르쳐 준다. 자연이 길러낸 자연의 몸을 캐다 먹고 뽕아 먹기만 하면 자연은 자신의 황폐한 모습을 그들에게 되돌려 준다. 우리가 조용히 그리고 정말 겸허하게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면 자연은 늘 두 가지의 목소리로 자신

의 속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음을 알게 된다. 때론 후덕함과 여유가 담긴 목소리로 그리고 때론 사납고 조금한 목소리로. 자연이 건네 준 다정한 목소리만 들은 것이 동양의 자연관이라면 그 사나운 목소리에 담긴 역설의 교훈을 깨달은 결과가 서양의 과학이라면 과학이다.

철저한 개발 계획과 함께 들짐승의 먹거리를 관리하고 그를 통해 결국 들짐승들이 마음껏 뛰놀게 하고 있는 유럽과 북미의 숲,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울린다는 철학적 응석과 함께 숲을 보호한다고 해보지만 내면적으로는 들짐승은 물론 그들의 먹거리들마저 뿌리째 먹어버린 우리네 숲, 이 허탈한 문화적 대비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인간애에 기초한 과학적 개발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다. 과학적 지혜가 없는 서투름이 자연을 망가뜨릴 뿐이다. 좀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자연은 인간의 삶을 위해 그 공간을 내어 줄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숲이 내어준 그 속살에 대한 고마움과 그에 대한 대가로 속 깊은 보살핌을 되돌려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지만, 해서 보다 중요한 것은 개발에서 지켜낸 숲의 면적이 아니라 숲의 깊이이다. 어렵사리 지켜낸 숲이라 해도 그 숲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생각을 고치지 않는 한 우리네 숲은 언제까지나 들짐승의 먹거리도 들짐승도 없는 속 빈 숲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들풀의 향기와 들짐승의 비린내를 잃어버린 숲은 그 크기가 얼마가 되던지 결국 생기를 잃게 마련이다.

때문에 역설이지만, 이제 숲을 지키는 것은 「노자」에 기댄 철학적 응석이 아니라 결국 침착한 과학이 되고 만다. 그리고 비유가 아니지만, 숲이 넓어야 물이 맑아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숲이 깊어야 물이 맑아지는 법이다.

숲과 바다가 어우러진 생태계의 보고 케언즈

글, 사진 · 이형준 / 사진가



01. 케언즈 도심과 연결되어 있는 열대우림지역으로 세계자연유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다. 02. 열대우림지역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 수미터에 이르는 고생대 식물인 고사리. 03. 특수하게 제작한 사륜구동차를 이용하여 열대우림지역을 안내한다. 04. 스카이 레일을 타고 내려다본 배런폭포 지역의 울창한 숲과 계곡. 05. 케언즈의 열대우림지역을 걷다보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앵무새. 06. 케언즈 열대우림지역의 공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코알라를 살펴보고 있다.



01



자전거로 대표되는 환경도시 프라이부르크를 필두로 꽃으로 상징되는 환경도시 라이덴, 멋진 계획도시로 새롭게 태어난 키타규슈, 그리고 21세기 최고의 환경도시를 꿈꾸는 스웨덴 예테보리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독특한 생태도시가 자리잡고 있지만 오스트레일리아 동북쪽에 위치한 케언즈(Cairns)만큼 태초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생태도시도 드물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자연사박물관을 연상시키는 케언즈, 그곳에 이르면 진정한 생태와 환경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연스럽게 느끼게 된다.

도시의 관문에 해당되는 케언즈 공항에 첫발을 내려놓는 순간 누구나 탄성을 지아낸다. 우선 국제공항이라는 사실이 의심스러운 정도로 작은 규모에 놀라고 공항 주변이 정글을 연상시킬 정도로 울창한 숲 속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란다. 공항과 도심 사이에 자리잡은 열대우림지역은 아무리 살펴봐도 도시에 자리잡은 숲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 규모가 엄청나다. 지구촌 어느 곳에서도 쉽게 접할 수 없는 160여 종류의 나무와 독특한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진 케언즈의 열대우림지역은 1986년 유네스코에서 세계자연유산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정도로 독특한 생태계를 보존하고 있다.

환상적인 자태를 드러낸 폭포, 웅장한 경관을 간직한 계곡,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강물, 화산이 만들어낸 크고 작은 바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볼거리가 산재되어 있는 열대우림지역이지만 그 중 으뜸은 역시 숲이다. 열대우림지역의 숲을 관람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스카이 레일이라고 불리는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이동한 다음 산책로를 따라 숲을 둘러보는 것이고, 다른 방법은 특수하게 제작한 사륜구동차를 타고 열대우림지역을 찾아 나서는 방법이다.

스카이 레일이란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경우 열대우림지역을 관람하면서 중간 기착지에 내려 원하는 곳을 찾아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점이 큰 매력이다. 크게 레드픽 지역과 배런폭포 지역으로 구분되는 스카이 레일의 코스에서 접할 수 있는 숲은 120만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단순한 숲이라기보다는 열대지역에 서식하는 나무와 식



05



06

물을 모아놓은 자연사박물관 같은 곳이다. 더욱이 간혹 온 대림과 아열대 우림에서 접할 수 있는 나무들도 함께 분포되어 있어 매년 2월이면 지구촌에서 나무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곳을 찾아와 연구와 각종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케언즈의 우림지역이 이토록 독특한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요인은 울창한 숲이 일종의 지붕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습도 조절은 물론이고 바람, 태양으로부터 나무들을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군용으로 제작된 자동차를

개조한 시루구동의 특수차를 이용하여 내륙지역으로 들어서면 스카이 레일 지역에서 접할 수 없었던 흥미로운 나무들과 고생대에 서식했던 키가 수미터에 이르는 고사리 등을 볼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완벽한 숲이 보존되어 있는 내륙지역은 2000만 년 동안 그 모습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아열대와 열대지역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꽃을 비롯하여 커피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양치식물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한 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더불어 나무 타는 캥거루로 알려진 럼홀츠 캥거루 같은 흥미로운 야생동물과 특히 희귀한 조류가 많이 서식하는 곳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선명한 색깔의 무지개앵무새를 필두로 빨간색과 노란색이 대비된 무늬가 아름다운 오스트레일리아앵무새는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고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다보면 화려한 색상을 간직한 독특한 모양의 새와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을 만나는 것도 어렵지 않다. 나무를 타는 캥거루인 럼홀츠의 경우 좀처럼 볼 수 없으나 일반 캥거루와 소형 캥거루로 불리는 파로마월라비, 그리고 나무에 매달려 잠을 자고 있는 코알라 같은 동물은 수시로 볼 수 있다. 만약 행운이 따르면 뉴지대와 물이 흐르는 곳에서 악어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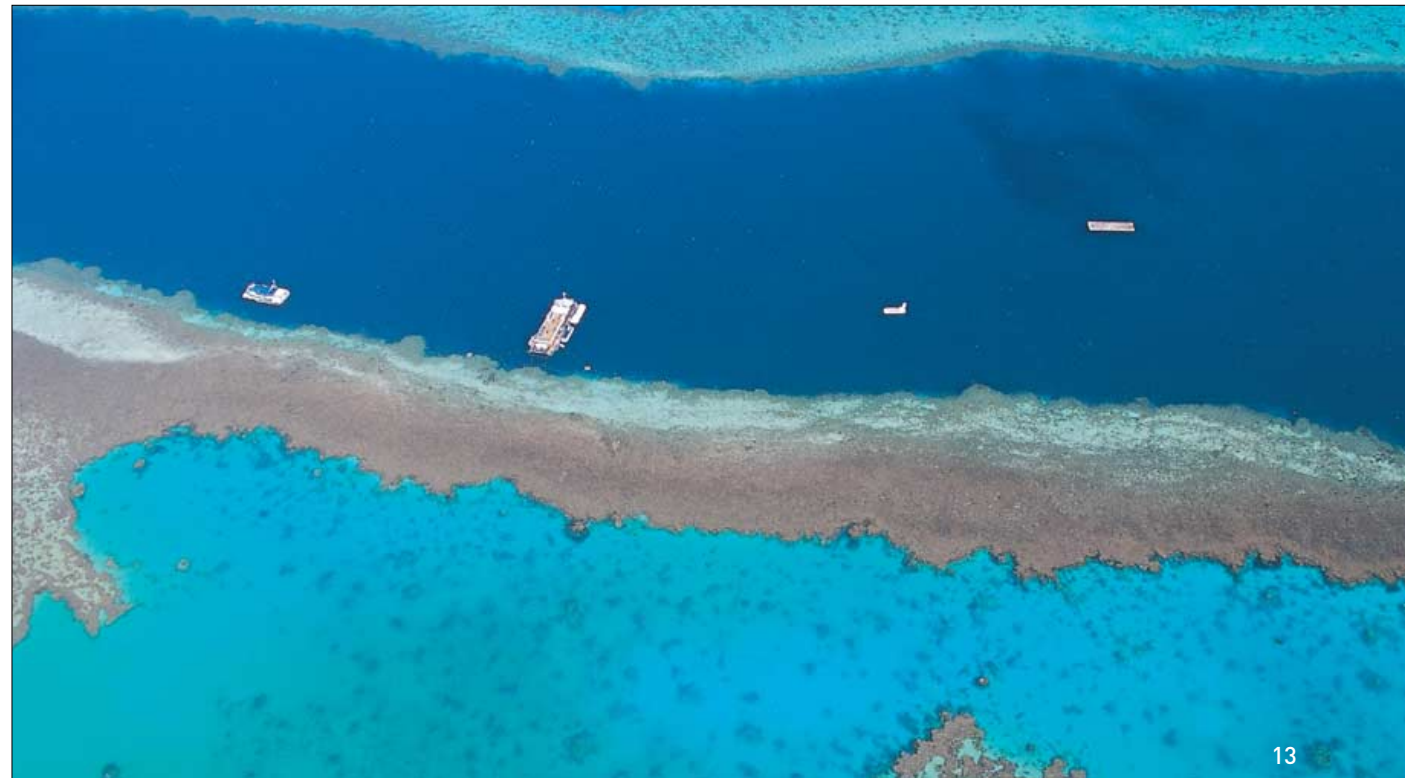
지상 최고의 생태도시로 알려진 케언즈, 흔히 케언즈의 생태계와 환경을 이야기할 때면 놓칠 수 없는 것이 깨끗한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지역이다. 대보초(大堡礁)라고 불리는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는 길이만도 2000킬로미터에 이르는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 걸쳐 있지만 그 중심은 케언즈이다. 1800만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에 서식하는 어류는 1500여 종류에 이르며, 해삼과 불가사리 같은 400여 종의 극피동물, 242종류의 조류 등 다 헤아릴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 어류와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상 최대의 생태공간이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지역에 이토록 엄청나게 다양한 어류와 극피동물이 서식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지역에는 환경을 파괴하는 어떤 시설물도 건축할 수 없다. 공장은 말할 것도 없고 방문객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데 필수인 건축물마저도 철저한 환경평가를 마친 연후에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가해 주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하루에도 수천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섬의 경우도 편안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지만 숙박할 수 있는 곳은 없다.

인구 10만 명이 거주하는 케언즈는 숲과 자연 생태계만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 비록 적은 인구지만 동북지역의 대표적인 도시인 케언즈는 활기가 넘치는 도시이자 독특한 문화를 관람할 수 있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여러 자랑거리 중 특히 유명한 것이 도시 전체를 하나의 생태 박물관 관처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우선 항구와 해변을 따라 설치해 놓은 산책로는 모두 자연에서 생산하는 재료를 이용하여 건설해 두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지역의 생태계와 자연보호를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인보드를 설치해 두고 있어 시민들은 물론이고 관광객들도 스스로 환경을 보호하도록 조치를 취해 놓고 있다.

케언즈의 생태계를 이야기할 때면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것이 철저한 환경보호교육이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들이 선생님과 함께 참여하는 현장 학습 장소는 말할 것도 없고 놀이시설이나 공공장소와 거리에도 그 지역에서 서식하는 동식물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담아놓은 사인보드를 접할 수 있다. 도시의 주요 장소마다 이런 시설물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 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환경을 보호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케언즈에는 숲과 바다 외에도 흥미로운 장소가 즐비하다. 도시의 거리를 걷다보면 환경과 생태계에 관련된 크고 작은 공원과 박물관을 비롯하여 친환경적인 물건만을 취급하는 상점, 자연 속에서 커피를 마시며 한적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그리고 대자연의 소중함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소가 도시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지구촌 어느 곳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매력적인 생태환경 도시다.



07. 스노클링을 즐기기 위하여 준비하는 부녀. 케언즈는 산호초와 갯벌, 그리고 모래사장이 모두 갖추어진 독특한 지역이다. 08. 케언즈 인근의 섬을 찾은 방문객들이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09. 케언즈 인근의 그린 섬에서 스노클링을 즐기고 있다. 10. 동물 모양을 형상화 시켜 만들어 놓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11. 어린 아이와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로를 따라 걷고 있는 시민. 12. 아름답고 깨끗한 바다에서 카누를 즐기고 있다. 13. 케언즈 지역에서 조금만 이동하면 접할 수 있는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지역의 아름다운 산호초.

근대 과학의 출발, 뉴턴 물리학

이은경 / 전북대 과학학과 교수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유명한 사과가 3개 있다. 백설공주가 먹었던 독사과, 미국 애플 컴퓨터사의 한 입 베어 먹은 무지개 사과 로고, 마지막으로 영국 과학자 아이작 뉴턴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는 그 사과. 셋 다 먹을 수는 없지만 인간의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만든 '영양가 있는' 사과들이다. 백설공주의 사과는 수십 년에 걸쳐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애플사의 '사과'는 가정으로 들어와 PC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뉴턴의 사과는 보편중력 개념의 탄생에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은 물론 뉴턴의 사과다. 크게 나누어 '사과 떨어지는 것을 보고 보편중력같이 중요한 개념을 생각하다니 뉴턴은 정말 천재다'와 '보편중력은 뉴턴이 오랫동안 고민한 문제의 답이지 한순간에 생각해 낸 것이 아니다' 하는 두 가지 평가가 있다. 뉴턴에게 사과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사람의 기록만 있을 뿐 뉴턴이 직접 쓴 글이 없으니 어느 쪽이 맞는지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뉴턴의 보편중력 개념은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현상을 설명할 뿐 아니라 근대 과학의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지금부터 300~400년 전에 오늘날의 과학의 직접 조상이라 할 근대과학이 성립되었다. 이 과학은 우리의 정신세계와 물질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은 근대과학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과학혁명'

이라고 부른다. 뉴턴 물리학은 과학혁명의 주역인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별의 움직임을 설명했기 때문이다. 뉴턴이 내놓은 운동의 3법칙에 보편중력을 적용하면 오랫동안 과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연구했던 별의 운동 문제가 속 시원히 해결되었던 것이다. 뉴턴이 왜 위대한지 이해하려면 보편중력과 관련된 당시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근대과학 이전에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달을 경계로 지구와 하늘 세계가 나뉘었다고 생각했다. 즉 지구에서 달까지와 달 너머의 두 세계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생각은 매일의 경험과 잘 맞았다. 예를 들어 해와 달을 포함한 하늘의 모든 별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매일 뒀다 지기를 계속한다. 또 지구에서는 물체들이 아래로 떨어지고 똑바로 날아가고 빙글빙글 돌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움직이지만 달 너머 세계에서 별들은 언제나 둥글게만 움직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천문 현상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면서 학자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나타났다. 1,000년 이상 쌓아온 관측 기록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 오랫동안 믿었던 것과 달리 별들이 둥그란 원이 아니라 가름한 타원 모양으로 움직였다. 학자들은 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관찰 기록을 믿고 이를 받아들였다. 그보다 더 골치 아픈 문제, 즉 관측 기록 가운데 일부는 지

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일 경우에만 잘 설명이 되었다. '지구가 움직인다니?' 물론 대부분의 학자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대신 복잡하고 어려운 다른 해결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으나 쉽지 않았다.

오직 몇 명만이 관측 기록을 단순명쾌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가정을 받아들였다. 이런 과감한 인물 중에는 유명한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있었다. 두 사람이 겪은 일을 보면 이 가정이 당시에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알 수 있다. 천문학자였던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의 내용을 정리한 책을 죽기 직전에야 출판했는데, 곧 교회의 금지도서 목록에 올랐다. 그보다 뒤의 세대인 갈릴레오는 공공연히 지동설을 옹호한 것이 한 빌미가 되어 종교재판정에 섰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했다.

종교재판 후 갈릴레오는 '위험한' 천문학의 문제를 접고 보통 물체들의 운동이라는 '안전한' 문제에 집중했다. 뛰어난 수학자였던 갈릴레오는 물체를 위로 던지거나 줄에 매달아 빙글빙글 돌리는 운동을 수학식으로 나타냈고, 갈릴레오 이후 많은 학자들이 이를 계승 발전시켰다. 그 과정에서 거리 제공 비율로 크기가 줄어드는, 즉 거리가 2배 멀어지면 크기가 1/4로 줄어드는 힘이 있으면 물체가 타원 모

양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별들의 타원 운동에 대해 뭔가 힌트를 줄 것 같았지만 당시의 수학으로 이를 엄밀하게 증명할 수 없었다.

수학과 물리학에 다같이 능했던 뉴턴이 이 문제를 지나칠 리 없었다. 창조적인 천재들은 없는 길도 만들면서 목적지로 나아가는 법. 그는 미분과 적분을 발명했고 미적분을 사용해 거리 제공의 비율로 크기가 줄어드는 힘이 있으면 별이 타원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도 남았다. 지구상에서는 인간이 물체를 운동하게 만들지만, 광활한 우주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올까?

이 질문의 멋진 해답이 바로 보편중력이었다. 뉴턴은 모든 물체들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 즉 보편중력이 있고 그 크기는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다고 생각했다. 뉴턴은 보편중력을 써서 별들이 왜 타원 모양으로 움직이는지, 지구에서 물건이 왜 땅으로 떨어지는지 잘 설명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지구와 사과는 서로 같은 힘으로 끌어당기지만, 지구가 사과에 비해 워낙 무겁기 때문에 지구가 사과 쪽으로 끌려가는 대신 사과가 지구 위로 떨어지는 것이다.

보편중력을 기초로 한 뉴턴의 물리학은 여러 면에서 중요하다. 지동설의 방해물이었던 지구와 별의 운동 원리를 설명했고, 지구와 달 너머 세계가 사실은 같은 물리 법칙이 작용하는 같

은 세계임을 밝혔고, 복잡다양한 모든 운동을 간단한 법칙으로 나타내 자연의 원리가 사실은 매우 단순함을 보였다. 또 보편중력같이 실제 경험한 적이 없지만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설명할 수 있으면 그 이론을 '참'이라고 믿게 만들었다. 뉴턴 이후 사람들은 과학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움직임을 전혀 못 느끼지만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믿고, 지구에서 통하는 법칙에 따라 제작하고 운전되는 우주선을 달 너머로 쏘아 보낸다.

보편중력이 중요하고 또 사과 이야기가 유명해서일까? 부산에서 열린 살바도르 달리 작품전에서는 전시 도중 뉴턴의 사과를 나타낸 작품의 줄이 끊어져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어떤 관람객이 보편중력을 실험해 보고 싶었나 보다.



Mr. Beauty를 위한 첫 단계, 봄철 피부 관리

이혜진 / 뷰티 칼럼니스트, 태평양 마케팅커뮤니케이션팀

백운식이 얼굴에 시트 마스크를 붙이고, “조인성처럼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하고 말하던 광고를 기억하는지? 여성보다 더 미에 관심을 갖고 본인을 가꾸는데 여념이 없는 ‘Mr. Beauty(미스터 뷰티)’라는 신조어가 새롭게 유행하고 있는 요즘이다. 남성 전용 파운데이션이나 색조 화장품, 네일 케어 제품까지 선보이고 있는 유럽, 일본에 비하면 아직 우리나라 남성에게 피부 관리란 낯선 이야기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보다 환한 얼굴로 대인 관계에서나 사회 생활에서 호감을 얻는데 분명한 이점이 될 수 있다.

봄철 피부 관리의 기본은 철저한 세안

겨울동안 마치 죽은 것처럼 얼어 붙어 있던 산천초목이 싱그럽게 피어 오르는 봄. 하지만, 남자의 피부는 산천초목과는 반대로 거칠어지고, 칙칙해지며, 빛을 상실하곤 한다. 봄별은 화사한 꽃을 피우지만 반대로 피부를 건조해지게 하고, 봄꽃들이 뿜어내는 꽃가루와 황사 바람은 피부를 더럽히고, 모공을 막으며,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키기 때문에 봄철에는 좀 더 꼼꼼한 피부 관리가 필요하다.

봄철 피부 관리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바로 청결한 피부를 유지하는 것이다. 봄이 되어 기온이 올라가면서 피부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피지 분비도 왕성해지는데, 여기에 봄바람에 섞인 꽃가루와 먼지, 황사 등이 붙어 피부가 쉽게 더러워진다. 남성은 여성들에 비해 피지 분비가 많고 모공이 크며, 피부 트러블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깨끗하게 세안해야 한다. 남성들의 가장 큰 피부 고민은 얼굴에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럴 때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세안 후에 스크럽 제품을 사용해주면 좋다. 스크럽은 알갱이가 들어있는 세안 제품으로 묵은 각질을 관리해주는 데 효과적이다. 물기가 있는 얼굴에 2~3

분 정도 마사지하듯 부드럽게 문질러 준 후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행궤낸다. 눈가는 피해서 사용하고 콧방울과

이마 등 피지 분비가 많은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손놀림을 해준다. 특히 면도 전에 스크럽을 해주면 면도 과정이 훨씬 쉬워지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피부 관리 제품들이 보다 잘 흡수된다. 이 시기 또 피부는 연약해지고 수분이 부족해진다. 건조한 피부는 빛이 고르게 반사되지 않아 피부가 맑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부가 거칠어지고, 이를 방지하면 탄력까지 저하되기 때문에 피부가 항상 촉촉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도 후 자극받은 피부에는 끈적인다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스킨, 로션, 에센스 등 피부 상태에 따라 알맞은 제품을 골라서 꼼꼼하게 펴 발라 유·수분 균형을 맞춰



준다. 특히 봄철에는 기온차와 황사 바람 등의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피부가 좀 더 건조함을 느끼게 된다. 이럴 때는 로션의 사용량을 좀 더 늘려주고, 그래도 건조함이 느껴지면 보습 성분이 함유된 에센스와 크림을 함께 사용한다. 평소 자신의 얼굴에 기름기가 많다고 생각되면 피지 조절 에센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스킨, 로션을 바르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봄철 피부 관리에서 빼먹어서는 안되는 것이 바로 선크림이다. 아무리 열심히 피부를 관리해 주어도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않은 채 피부가 봄볕에 노출되면 다시 피부는 칙칙해진다.



여성 피부도 목마르다

여성 피부에 있어서도 봄철 가장 큰 적은 건조함으로 철저한 클렌징과 보습이 중요하다. 특히 얼굴 전체에서 건조함을 가장 빨리 그리고 많이 느끼는 입술과 눈가 피부는 보다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 매일 아침 저녁 아이크림을 바르는 것을 빼먹지 말아야 한다. 아이크림은 눈 밑에 점을 찍듯 발라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펴 바른다. 각질이 일어나기 쉬운 입가에는 에센스를 적신 화장솜을 얹어둔다. 영양 성분이 스며들도록 2~3분간 기다렸다가 떼어내면 된다. 로션을 바를 때 에센스를 섞어서 사용해도 좋다. 낮 동안에는 립글로스나 립밤을 덧발라 주는 것도 좋다. 피부 활력 강화를 위해서는 마사지나 팩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 마사지 크림을 대추알 크기 정도 덜어내 얼굴 전체에 바르고 손가락을 이용해 둥글게 마사지해주면, 피부 순환이 촉진되어 피부가 촉촉해진다. 또 팩을 해주면 피부의 수분 증발을 막아 피부가 촉촉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피부 활력을 되찾기 위한 몸과 마음의 평정, 그리고 체력 보강

겉으로 보이는 피부의 관리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 내면까지도 관리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미스터 뷰티라 할 수 있다. 피부 상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업과 성격, 생활패턴, 그리고 사소한 습관까지도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각종 스트레스와 번잡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신과 육체에 안정과 휴식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웰빙이라고 하면 무턱대고 어렵다 생각하기 쉽지만, 몇 가지 소도구와 아이디어만 있으면 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다. 건강한 목욕을 위한 베스 용품, 심신의 피로를 푸는 오일 한 방울, 아로마 향기를 지닌 향초만 활용해도 충분히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다. 이것도 번거로우면 허브티를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자. 티를 우려낼 때 식물 성분 향기가 실내에 퍼져 공간도 향기로워진다. 특히 화장품 원료로도 사용되는 카모마일 차는 감기와 피로 회복에 좋다.

또한 봄이 되면 우리 몸은 적응할 시간과 자원을 달라는 신호를 여러 가지로 보낸다. 시도 때도 없이 나른하고 졸린 ‘춘곤증’이나 유난히 버섯거리고 거칠어진 피부가 그러한 신호의 일례이다. 이럴 때는 무엇보다 몸의 컨디션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 급선무. 가능한한 6~8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을 유지하도록 한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기억력 장애 등 뇌 기능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신체 내분비 균형도 깨지게 된다. 낮에 잠시 낮잠을 자는 것도 유익하다. 비타민과 미네랄 등 몸에 미량 필요한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과일과 야채를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어려울 경우라면, 비타민 C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신선한 물을 마시는 것도 필수. 현대인은 대부분은 약간의 탈수 상태, 특히 사무직의 경우 근무 환경 자체가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항상 수분이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맑고 깨끗한 물을 마셔 주어, 몸의 노폐물을 신속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커피 등 카페인 음료는 피하하도록 한다. 춘곤증을 쫓는다고 카페인 함유 음료를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오히려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Teamwork

울진 5,6호기 원자로계통설계사업팀

김명환 / 원자로사업관리실 부장

울진 5,6호기 원자로계통설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부서는 지난 1994년 Task Force Team으로 출발, 2년여에 걸친 계약협상 과정을 거쳐 1996년 11월에 본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울진 5,6호기는 경상북도 울진군에 건설 중인 1,000MWe급 가압경수로형 원자로 2기로 한국 표준형원전 최초 호기인 울진 3,4호기 옆에 위치하고 있다. 울진 5호기는 지난 1999년 1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지난 7월부터 상업운전 중이고 6호기도 올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시운전 중이다.

원전 5기가 운전 중이고 1기가 완공을 앞두고 있는 울진원전 현장은 우리 원자력기술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어 흥미롭다. 울진 1,2호기는 우리의 원전건설 경험이 적었던 지난 1983년 프랑스 프라마토사의 기술주도로 건설된 950MWe급 가압경수로형이고, 그 옆의 울진 3,4호기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의 원전기술을 우리 기술진이 소화하여 건설한 1,000MWe급 가압경수로형인데 반해 울진 5,6호기는 우리 기술진이 울진 3,4호기를 개량하여 독자적으로 건설하는 발전소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의 원전기술 일부가 해외로 수출도 되고 터키 형식의 수출 협상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서 울진 현장의 웅장한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하지 않을 수 없다.

울진 5,6호기는 1994년 12월 31일 현재 유효한 국내·외 공업규격, 표준 및 규제법규를 적용하여 건설 중인 최신형 원전으로, 세계 원전건설 사상 최초로 발전소보호계통 및 공학적인전설 비작동계통을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첨단 디지털 방식을 채택하여 경제성 제고는 물론 안전성 및 신뢰성을 한 단계 끌어올림으로써 한국표준형원전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과시한 발전소이다.

우리 부서는 최고의 설계품질을 확보하여 설계결과물을 기기 제작회사 및 원전 운영자에게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원전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설계부서 및 대외 관련사와 항상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최적의 사업관리를 위한 Cross-link 역할을 견지하고 있다.

원자로계통설계가 원전 건설사업의 선행역무인 특성을 감안하여 우리 부서 구성원 스스로가 첨병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고객관리 또한 잊지 않는다. 우리가 설계한 사양들이 후속단계에서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서호택 부장, 김화분 씨, 강동일 차장, 김인식 상무, 김명환 부장, 박철우 차장, 이득수 차장.

최적의 설계가 되어 기기가 제작되고 가동되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발전소 현장의 목소리도 수시로 수렴하여 경제적이며 인간공학적 설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처럼 다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올진 5,6호기 원자로계통설계사업팀은 사업책임자인 김인식 상무를 비롯하여 이득수 처장, 서호택 부장, 박철우 차장, 강동일 차장, 김화분 씨 그리고 나를 포함 7명으로 구성되어 최적의 설계를 위한 최적의 팀워크를 자랑하고 있다.

사업책임자인 김인식 상무는 스위스제 시계만큼이나 매사가 정확하고 빈틈이 없다. 우리글이든 영어든 간에 그의 손을 거치면 바로 납품상태가 된다. 매일 아침 운동으로 다져진 그의 차돌맹이 근육이 시종일관 본 사업을 이끌고 온 원동력이다. 올해 그에게는 10여년에 걸쳐 수행중인 올진 5,6호기 원자로계통설계사업을 마무리해야하는 중책이 주어졌다. 그런데 그는 이를 북받았다고 말한다. 또한, 지면을 통해 그동안 올진5,6사업에 매진해준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말도 잊지 않는다.

사업부책임자인 이득수 처장은 소위 양수겸장의 엔지니어이다. 고리 3,4호기 시공에서 핵연료시설 설계, 중수로계통설계에 이어 경수로계통설계까지 두루 섭렵한 보기 드문 경력을 바탕으로 1997년부터 한 톨의 오차도 없이 본 사업을 실무적으로 진두지휘하고 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두툼한 턱과 항상 터지는 웃음은 발주처나 설계부서와의 이견 조율에 더할 나위없는 무기가 되기도 한다.

180cm의 흰철한 키에 미남형인 서호택 부장은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서 유체설계, 안전해석 등 설계부서에서의 풍부한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1997년부터 기술총괄을 담당하고 있다. 기술총괄은 계통설계의 기술적인 업무처리 뿐만 아니라 발주처, 설계부서 및 관련사들과의 복잡한 문제를 실무적으로 풀어야 하는 어려운 역할이다. 설계개선 및 설계품질 확보를 위한 그의 부단한 노력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고 있다.



박철우 차장은 한마디로 만능 스포츠맨이다. 20여년 넘게 친 테니스 실력은 거의 프로급 수준이며 그의 부인도 테니스 코치를 해도 될 실력이라 게 주위의 평이다. 그는 일을 기다리지 않는다. 집이 회사에서 5분 거리에 있다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며 휴일에도 자주 나타난다. 그래서 '거동수상자'란 별명이 붙었다. 그가 맡은 인허가 지원, WEC Support Work, 진도관리, 연계관리업무는 자연이란 게 없다.

강동일 차장은 사업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부서의 크고 작은 일을 묵묵히 해 나가는 재주꾼이다. 아무리 꼬인 문제도 그에게는 거침이 없다. 디지털 세대답게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실무에 필요한 프로그래밍도 직접 만들어 주위를 놀라게 한다. 매주 1회 부서 화합을 다지는 배드민턴 경기의 기술을 정리하는 우리 부서 배드민턴 코치이기도 하다.

우리 부서 홍일점인 김화분 씨는 부서 살림을 총괄하는 숨은 일꾼이다. 지원업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원한 이목구비가 말해주듯 항상 밝은 모습으로 주변사람을 대한다. 워드 프로세서에도 발군의 실력을 가지고 있어 아날로그 세대들의 지팡이 역할도 하고 있다. 여행을 좋아하며 여가활동을 짜임새 있게 보내는 우리 부서의 분위기 메이커이다.

마지막으로 그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10여년에 걸쳐 수행되어 온 올진 5,6호기 원자로계통설계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나는 사업운영책임을 맡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김동수 단장님, 박정식·이남영 부장, 박신동·서길수·배봉재 차장, 박순천 씨, 올진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박현우 부장도 우리 사업의 최강 팀원이었으며 올진 5,6호기 원자로계통설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이들의 노력도 보태어졌음을 알리며 우리 팀의 소개를 끝내고자 한다.



Hartsfield-Jackson Development Program 연수를 다녀와서

임재민 / 사업관리기술처 차장

지난해 10월말 정부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지원을 받아 공항 및 PM사업에서 세계 굴지기업인 파슨스(Parsons)가 진행하는 Hartsfield-Jackson Development Program(HJDP) 국제협력 집단연수에 일주일동안 참가하였다.

Hartsfield-Jackson Development Program은 세계 제2위의 공항인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명실상부한 세계공항으로 발돋움시키려는 미래 전망(Future Prospective)과 아울러 현재 포화상태인 활주로, 여객시설 등의 현재 대응(Present Responsive) 전략 아래 진행되는 미 애틀랜타시와 공항당국의 숙원사업이다. 현재 애틀랜타 공항은 국내선과 국외선이 동시에 이착륙을 하고 있으며 약 45초당 1대의 비율로 이착륙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상상태가 양호하지 않을 때도 약 3분에 1대 비율로 이착륙을 하는바, 이에 더하

여 현재의 활주로 4 Lane에 추가로 4 Lane을 건설하고 터미널을 2개 증축하여 총 3개의 터미널을 만드는 그야말로 공항이 거대한 '도시'를 이루는 프로젝트이다.

Hartsfield와 Jackson은 이 프로젝트 개발에 기여한 애틀랜타주지사 두 사람의 이름으로서 프로젝트 총예산이 6,211M \$에 이른다. 이번 연수는 현재 프로젝트의 진행상황과 이에 따른 각종 사업 기법 등에 대한 강의 및 현장견학과 산업시찰로 진행되었다.

10월 21일 일요일 저녁 애틀랜타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숙소에 짐을 풀기가 무섭게 바로 월요일부터 교육이 시작되었다. 파슨스는 이 프로젝트의 사업관리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에 파슨스의 국제적인 명성과 함께 1만 수천여명의 수많은 인적자원(Human Resources)과 기술(Know-how)을 아껴온 그들의 노력이 뒷받침되어 애틀

랜타 공항사업에 참여하는 100여명의 Parsons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지원하는 강한 의지(Policy)를 엿볼 수 있었다.

첫날 여행의 시차에 따른 피로(Jet Lag)라는 말이 무색하게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다가 바쁜 시간을 쪼개어, 강의하러 서둘러 강의실로 들어오는 그들의 모습에 놀랐다. 그리고 소위 간부급(Manager, Director)이 한국에서 온 낯선 우리들에게 동등한 인격체로서 성실히 최선을 다해 강의하는 모습에 다시 놀랐다. 이렇게 시작된 강의는 HJDP의 개요와 사업안내로 이어졌다.

둘째날 본격적인 각 단위 사업별 진행사항과 사례가 설명되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교육에 참가한 모든 분들이 단 한순간도 강사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듣는 태도와 함께 부족한(적어도 Native Speaker보다는 모자라는) 영어실력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태도에 소위 대외비라고 했던 '사업수행 조직도(Organization Chart)'를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사업기구와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얼마나 이 프로젝트가 큰 사업이며 장기(최종 2012년)전략적 사업인가를 알았다. 특히 사업을 주도하는 사업관리조직(PM/CM)의 역할이 미국 내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아울러 본인의 인천국제공항 사업관리 종사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복합공종(Multi-disciplinary)으로서의 다층적 다양성을 지닌 Interface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되었다.

셋째날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관심이 많았던 사업관리(Program Management)와 건설관리(Construction

Management)에 대한 사례(Case)와 함께 다양한 사업참여자의 실제 수행업무 현황을 들으면서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큰 그림의 윤곽을 잡게 되었다. 특히 차를 타고 가다 수시로 차를 세워가며 설명해주는 Parsons사의 활주로 분야 Element Director의 상세한 설명은 미안한 마음까지 들 정도로 자상하였다.

그리고 넷째날과 다섯째날, 미국 현지의 견학활동은 그야말로 새삼 해외 건설시장에 있어서의 국제사업과 전략산업의 거대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공항확장사업에만 무려 약 7조5천억원의 자금이 동원되는 HDJP 프로젝트는 명실공히 Global Age에 대응하는 장기 포석과도 같은 사업으로 향후 세계경제의 급속한 재편을 통한 물류와 여객의 이동 등 이른바 항공수요의 급속한 증가를 예측하고 있다. 더욱이 개인적으로 소위 대국이라 불리는 중국, 인도, 러시아 등 국가면적이 절대적으로 광활한 지역일수록 장차 이러한 항공수요와 공항에 대한 수요와 마케팅전략의 필요(Needs)는 더욱 클 것으로 예견된다.

우리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아직 대내외적으로 개척중인 건설기술(사업관리, 설계, 시공, 시운전)시장의 전문가 육성이 새로운 국제사회의 변모하는 모습에 대처하는 길임을 배움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와 우리회사의 기술수준을 높이고 국제적인 유대관계를 증진시키는 한편 중국, 아시아, 러시아 나아가서는 세계 무대에 한국의 진출의지와 기회를 창출하는 교두보 역할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



Advanced Topics in Power System Protection 교육과정을 마치고

김기운 / 전기기술처 과장

지난해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실시한 Advanced Topics in Power System Protection 교육과정에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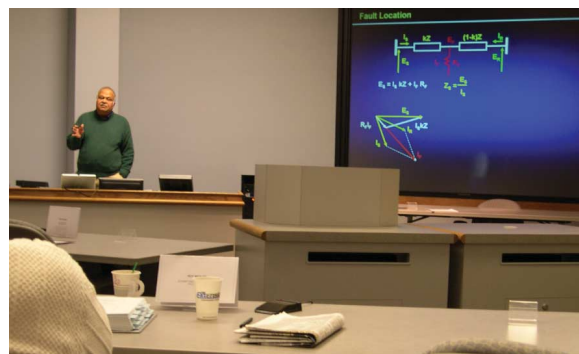
메디슨에 위치하고 있는 위스콘신대는 1848년에 설립된 주립대학이자 위스콘신 내 13개 캠퍼스의 본교로서 현재 3만 명에 이르는 학부생들이 재학 중이다. 멘도타, 모노나 호수를 포함한 크고 작은 호수들과 많은 수의 공원이 학교를 둘러싸고 있어서 미국내의 여러 대학들 중에서도 아름다운 캠퍼스로 널리 알려져 있다.

출발 전에 주위 사람들은 현지의 추운 날씨, 음식 및 주변 볼거리에 대한 조언을 해 주었다. 무엇보다도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니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다시 학생이 된 듯한 기분 좋은 상상을 하게 되었다.

정오를 지나 인천을 출발한 항공기는 오랜 시간의 여행에

종지부를 찍고 어느새 시카고 오헤어 공항 위에서 서서히 하강하고 있었다. 입국심사를 마치고 90번 도로를 이용하여 위스콘신으로 가는 도중 한 없이 맑은 하늘과 끝없이 펼쳐지는 대평원을 보면서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교육 장소는 기부자의 이름을 빌린 Pyle Center였는데, 각 기부자의 이름이 부여된 대부분의 대학 건물들을 보며 미국 기부문화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었다. 이번 교육의 목적은 전력계통 보호, 감시 및 제어분야에 관한 최근의 동향을 파악하고 개인적인 능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번 교육과정에는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다이내믹 현상에 대한 모의실험, 계전기 분야에서의 EMTTP 적용, 보호 및 계통에 대한 안정도, 전력계통 보호에 대한 디지털 통신 기기의 원격제어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졌다.



교육 첫날, 프로그램 감독인 Willis Long 교수의 기조연설과 참가자 개인의 간단한 소개가 있은 후, Arun Phadke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그의 주요 관심 분야는 다이내믹 현상에 대한 모의실험과 보호계통에 대한 안정도 해석이었는데, 다양한 사전 자료를 준비하여 차분하게 설명하고 참가자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교수법이 인상적이었다.

발표자 중 또 한명 기억에 남는 사람은 캐나다 수력발전소 BC Hydro에 근무중인 Charles Henville이었다. Charles Henville는 현재 실무 엔지니어로써 발전 및 송배전 분야의 보호용 계전기의 설계와 응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전압 안정도에 관심이 많아 2001년 발생한 캘리포니아의 대규모 정전사태에 관한 보고서도 작성하였다. 이러한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접목하여 이해와 토론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해 나가는 교수법이 인상에 남았다.

교육 후 돌아가는 길에 시간을 내어 일리노이주의 상공업 도시로 널리 알려진 시카고의 명소를 관람했다. 메디슨을 뒤로하고 3시간 이상을 차로 달려 시카고 시내 중심부에 들어서니 뻥뻥이 들어선 현대식 건축물들이 마치 뉴욕 시내에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했다.

하지만 이런 감상도 잠시뿐 어느덧 자동차가 내부 순환 도로를 빠져 나와 차이나 타운을 지나자 미시간호가 눈에 들어왔다. 호수라고 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크고 방대했으며, 찰랑거리는 물결과 햇살이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황금빛의 평화로움이 펼쳐졌다. 시어스 타워 건너편에 위치한

존 행콕 센터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호수 연안에는 넓고 푸른 공원과 요트항이 잘 정비되어 있어 매우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자랑하고 있었다.

시카고는 또한 버스,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 교통편이 좋고 전시장이나 호텔이 많아 전국적인 전시회나 회의가 자주 열리는 도시이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삼성동 무역센터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맥코믹 센터를 방문하였을 때에는 때마침 산업 박람회가 성황리에 열리고 있었다.

나타났다 사라지는 풍경에 마음을 빼앗기는 동안 시간은 흘러가고 어느덧 해는 기울어 건물들은 노을에 물들어 가기 시작했다. 이밖에도 구경거리는 많았지만 시간에 쫓겨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담수어가 있다는 수족관, 컵스의 홈구장으로 사용중인 리글리 필드, 프랑스 인상파의 작품을 모아놓은 미술관, 대규모 과학기술박물관 등을 돌아보지 못하여 못내 아쉬웠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전기 없는 삶은 상상하기가 힘들다. 전기는 마치 공기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이제는 필수품이 되어버린 전기의 중요성과 전력산업의 미래를 다시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아울러 한 정된 시간이었지만 그들의 생활문화를 통하여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분명 또 하나의 즐거움이었으며, 기회가 주어지면 좀 더 시간의 여유를 갖고 다시 찾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Talk & Talk 별관에 가 보 니

별관(구갑사옥) 시대가 지난 1월 25일 헌판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개막됐다. 임직원들의 보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철저한 조사와 반복되는 검토를 통하여 간택된 별관은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 35 1-1에 위치한 모닝플라자 건물(4~6층)로서 업무환경 전반에 걸쳐 세밀한 준비작업을 마치고 토목기술처, 건축기술처, 사서편찬추진반, 사육이전추진반 등 본사에서 근무하던 308명이 이전하여 새롭게 등지를 들었다. 모닝플라자는 대지면적 894평, 건물 연면적 8,754평의 지상 10층, 지하 4층 건물로서, 우리회사는 사무실 전용면적 1,233평, 대·소 회의실, 접견실, 휴게실, 전산실 등의 업무지원설비와 200대 규모의 전용주차장을 사용함으로써, 기존에 사무실이 협소하여 발생했던 애로를 모두 해소하였을뿐더러 보다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고 했던가요. 인사해서 새 건물에 근무하니 신입사원으로서의 각오도 더욱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신입사원이라 본관에 근무한 적은 없지만 별관에서 처음 맞이하는 업무환경이 쾌적합니다. 새 건물, 새 가구, 새 컴퓨터 거기에다 저의 새로운 마음을 더해 회사 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준한 / 토목기술처



건축기술처 사무실이 6층에 있어서 전망이 정말 좋습니다. 수원CC의 정돈된 조경, 매일 아침 일출을 사무실에서 보는 재미, 광고산을 잇는 SKY LINE 등 한마디로 창문이 그때그때 계절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보여주는 동양화입니다.

송남수 / 건축기술처 과장



본관에 근무할 때보다 넓어진 책상과 공간, 쾌적한 환경은 일의 능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회사를 방문하는 내방객에게도 깨끗한 사무실이 회사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식사시 밥을 먹기에 급급했던 본관 식당과는 달리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동료 직원들과의 친숙한 대화를 통해 직원들과의 친밀감도 더욱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권혁승 / 토목기술처 과장



공간이 넓고 창이 커서 사무실이 환한 점, 시설이 새 것이라 깨끗하고 정리가 잘 돼 있는 점, 매일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점, 다 별관에 와서 좋은 점이지만 제가 여기 와서 본 창밖 산위로 해가 떠오르는 장면은 앞서 말한 그 무엇에 견줄 수가 없네요. 본관의 탁 막힌 그런 공간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아직 다 정비가 안 되었지만 오일조일 조성된 옥상 조경은 앞으로 사무실에서도 녹지공간을 충분히 맛볼 수 있도록 해주리라 기대해 봅니다.

이상희 / 토목기술처



사실 처음 별관에 왔을 때는 실망도 적지 않았지요. 공사중인 사무실 건물과 시설, 그리고 익숙지 않은 구갈이라는 지역에서 적응해야 하는 걱정 등……. 그래서 마음속에 알뜰한 보상심리가 발동하여 회사에 지원을 늘려 달라고 담당자를 조르고 보채기를 어언 한달, 지금은 상당 부분이 해소되고 약속을 받아 별다른 고충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무실 공기가 너무 건조한 탓에 화초들이 물살을 앓고 있습니다. 좋은 점도 많지요. 예를 들어 중식 때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중국집으로……. 음식점이 ‘갑나게’ 많아요. 주변에 소공원 길도 좋습니다. 살다보면 정든다 하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구갈 별관에도 우리 직원들 정이 듬뿍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태광호 / 건축기술처 과장



사무실의 공간이 본관에 비교하여 꽤 넓고 여유로울 뿐더러 넉넉한 수납공간에 설계자료들을 보관하여 사무실과 책상 위가 정리되니 말끔해서 상쾌합니다. 주차장도 여유있어 주차하기 편리해서 마음에 듭니다.

황인수 / 건축기술처 과장



KOPEC 검도회

김만우 / 계측제어기술처 과장, KOPEC 검도회 총무



창문에 스치는 바람 소리도 울릴 만큼의 고요함 속에 호면, 호완, 갑 그리고 갑상의 호구로 무장한 두 검사가 중단자세로 죽도를 겨누면서 무아의 눈빛으로 서로의 빈틈을 찾는 탐색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 검사가 '머리~' 하며 날카로운 기합소리와 함께 상대를 덮칠 듯이 달려드는 순간, 바람을 가르듯 '허리~' 하는 단호한 기합소리와 함께 어느덧 덮쳐 오는 상대 검사의 허를 뚫는다.

劍道란 劍의 운용(신체)을 통해 道(정신)의 깨우침을 얻기 위한 운동으로 劍理(칼의 원리)를 바탕으로 스포츠화시킨 무도의 개념이 강한 경기종목이다. 득점부위는 머리(정면, 좌·우면, 손목(좌, 우) 허리(좌, 우), 목(찌름)이며 유효한 격자가 되려면 기(氣)와 검(劍)과 체(體)가 일치하여야 하며 충분한 존심(存心)이 있어야 한다.

검도는 원래 생사(生死)를 전제한 진검(眞劍)의 승부이기 때문에 기량 이전에 마음가짐 즉 정신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검도에는 '동선시(動善時)'라는 말이 있다. 움직임에는 다 '때'가 있다는 뜻으로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알아 함부로 날뛰지 않는 절제된 동작으로 '때'를 아는 검

도를 하라는 의미이다. 어느 무술보다도 높은 집중력이 요구되고, 상대를 검으로 제압하기 때문에 예의와 정신수양을 중요하게 여긴다.

KOPEC 검도회는 1997년 여름 1기가 약 80명으로 구성되어 출발하였다. 창단 멤버들은 수지별관에서 가까운 청운관에서 일과 후 폐기 있게 열심히 수련했다. 그러나 교통 체증으로 도장에 가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 청운관에서 더 이상 수련하지 못하고, 현재는 이경목 회장을 중심으로 23명의 회원이 개별적으로 훈련하고 있다. 조



만간 회사 근처 검도장과 협의하여 단체로 수련할 계획이다.

KOPEC 검도회 창립 이후 참가하고 있는 전국 규모의 대회는 봄에 열리는 3.1절 기념 검도대회 또는 여름에 열리는 전국 사회인 검도대회 등이 있다. 아직은 우리 검도회의 수련 연륜이 짧아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에는 벅찬 감이 없지

않으나, 그런 큰 규모의 대회에 꾸준히 참가하여 회원들의 실력 향상은 물론 KOPEC 검도회의 이름으로 참가하여 우리 회사의 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수련에 정진함은 물론 다양한 경험을 살려 전국대회입상을 목표로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제15회 한기문예 시부문 우수작

유 성

전상희 / 전기기술처 송기능 차장 부인

하늘에는 얼마나 많은 길이
열려있을까.
바람으로 꽃으로 살고 싶었다.
우리 생각에 갇혀 있던 우주도
때로는 일탈의 꿈을 꾸고
삼천년전 서라벌의 소녀가 걸어난
소박한 여인의 길
그 소녀가 눈 맞춰 둔 그 별빛이
오늘에야 나를 볼 줄이야
그 때 별을 보며 가슴 설레던 소녀는
무엇으로 살다 갔을까
구름 세월 마음..... 흘러가는 것이
어디 이뿐일까
당신에게 맺힌 슬픈 사랑도
때로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뿌리고
세월이 흐른뒤 다시 나를 연단한다
어느덧 물밑속에 잠길시간
나머지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다.
투명한 실오라기 걸치고
물살처럼 재 빨리
이세상의 소망을 빌어본다.
우리의 처음과 끝이
하늘에 닿아 있기를

제15회 한기문예 수필부문 우수작

지 갑

이홍승 / 기계기술처 차장

길을 가다가 또는 차안에서도 가끔씩
놀란다. 가방을 열고 지갑 또는 수첩
이 있는지 확인하는 버릇이 내겐 생겼
다. 가방속에 들어 있는 내용물들을
확인하고서야 또 빠뜨리지 않았구나
안심한다.

지갑 속에는 많은 현금이 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신분증, 카드, 현금
얼마가 있을 뿐인데, 지갑이 가방 속
에 없거나, 손안에 없으면, 마음은 불
안스러워진다.

학생일 때에도, 학교를 졸업하고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 지갑을 잃
어버렸다. 현금만 몽땅 잃어버리고 경
찰서를 통해 집으로 배달되어온 지갑
도 있었고, 영영 찾을 수 없었던 지갑
도 있었다.

상당액의 현금만 지갑 속에 들어 있
기만 하면 지갑은 나의 손을 떠나 멀
리 사라져 버리는 일을 몇 번 겪고 난
후 현금을 소지하길 꺼린다.

지갑 잃어 버린 일들은 시간이 흘러
과거 속의 한 사건으로 기억되어, 그
냥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만
생각될 뿐이지만, 지갑을 잃어버린 당
시의 마음 고생과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시작되어 갈 무

렵이었다. 아침 알람 소리를 듣지 못
하고 늦잠을 잤다면, 그날은 지갑을
해야 하는 통근거리를 가졌을 때였다.
손목시계를 바라보는 흐릿한 의식은
너무 놀랐다. 6시 30분이 흐릿한 의식
사이 두 눈으로 확연히 들어왔다. 평
상시의 6시 30분은 통근버스를 타고
있는 시각이었기 때문이다. 깜짝 놀라
서 세수도 하지 않고서 출근준비를 하
고 밖으로 나와서 택시를 탔다.

택시 안에는 라디오가 켜져 있었고,
빨간 글씨의 시간을 알리는 표시를 보
고 놀랐다. 내가 알고 있는 6시 30분
이 아니었다. 시간은 5시가 지나고 있
었다. 라디오에서 몇시가 지나고 있다
는 뚜뚜거리는 소리는 긴장하고 다급
한 나를 도리어 안심시키고 있었다.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택시를 내려
다시 집으로 되돌아 왔다. 몸은 너무
피곤했다. 그래 10분만 더 자야지, 잠
깐 눈을 감았다 눈을 뜨고서는 세수를
하고 통근버스를 타러 가려고 준비하
는 과정에서 지갑이 없다는 것을 알았
다. 분명히 아침 택시 안에서 손에 들
고 있던 지갑이었다. 없는 시간을 쪼
개서 택시 타러 갔던 동선을 되짚어
가보았지만 떨어진 지갑은 없었다. 지
갑속에 현금 십만원 정도, 카드 그리
고 통장까지 들어 있었다. 아침 출근
은 통근버스를 타면 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다. 어쩔 수 없이 통근버스를
타고 회사동료에게 돈을 빌려서 생활
했다. 현금카드는 분실하여 다시 만들
경우는 1500원이 들고, 분실 통장을

다시 만들 때에도 현금 수수료를 지불
해야 한다. 분명히 택시 안에 두고 내
렸을 지갑인데, 택시 운전아저씨는 아
침 일찍 택시를 탔다가 다시 내리는
사람이 꽤했는지 지갑주인에게 되돌
려 주지 않았다. 너무 바쁜 마음에 서
둔 결과였다.

여름날, 회사출장비로 받은 10만원
짜리 수표 열장 중 2장을 남기고 모두
출장비로 써버렸고, 출장기간, 첫 일
주일이 지나고 금요일 날 서울로 와서
토요일 오전 근무를 끝내고, 한가롭게
토요일 오후를 보낸 후였다. 여름 밤
친구와 학교 벤치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커피를 마시고서 무
심히 집으로 향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야 알았다. 지갑이 없었다. 방안 곳곳
을 찾아도 지갑은 없었다. 다시 어제
의 행로를 되짚어 길거리며 벤치며,
뒤져 보았지만, 지갑은 찾아지지 않았
다. 현금이야 어쩔 수 없지만, 출장비
인 10만원권 수표 2장과, 신분증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을 요량
으로 여기저기에 있는 쓰레기통도 뒤
져 보았지만 헛수고였다. 다시 발급
받아야 할 카드와 신분증의 문제도 그
리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다시 월요일 새벽이면 출장지에 가야
했기에 신분증을 만드는 것도 분실한
카드를 만드는 것도 힘든 일에 속했
다. 출장지 지방 카드를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했다.

금요일 저녁에 출장지에서 서울로 올
라운 후, 토요일 날 사무실에 출근하

여 수표발행 은행에 갔다. 막연히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모르는 수표번호 확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저, 수표를 분실했습니다.”

“수표번호는 모릅니다.”

이렇게 질문과 질문속에서 절차를 밟아서 수표 발행전표를 뒤져가면서, 다른 서류도 뒤져가며 열심히 찾은 결과 수표번호를 알아내기는 했다. 일주일 사이 누군가 수표를 사용했다면, 은행에 되돌아 와 있을 수도 있는 문제였다. 아직 사용되지 않았는지 수표는 은행으로 되돌아 오지 않은 상황이었다. 주위 사람들은 십만원권 수표는 분실하면, 현금 분실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며, 수표추적을 하는 자체를 그만두는 것이 마음 편하다는 충고를 했다.

수표는 습득한 사람도 함부로 쓰지 못하리라는 생각에 분실신고 후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다. 수표는 사용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나에게 연락이 된 어떤 전화도 없었다. 지갑 속의 현금은 다 쓰더라도 수표와 지갑은 돌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했지만, 막연한 희망은 가망 없어 보였다. 지갑 안에는 서울 도심권에서는 사용할 수도 없는 출장지 회사의 식권이며, 항공권 등등도 있었기 때문에 지갑이 제발 돌아왔으면 하는 기대는 컸지만, 일주일의 시간안에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표시였다.

지방출장이 끝나고 사무실로 출근하는 기간이었다. 은행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분실신고 했던 수표가 되돌아

왔다고 은행으로 당장 와달라는 연락이었다.

어떤 사람이 수표를 사용했을까?

분실했던 수표가 되돌아 왔으니, 수표를 찾을 수 있구나 하는 반가운 마음에 지체 없이 은행으로 향했다. 은행의 직원들은 지점장실로 들어가라고 전했다. 지점장실에는 중년 남자 한 분도 같이 앉아 있었다. 중년 남자는 수표를 입금하러 온 음식점 주인이라고 했다.

경찰관이 심문하듯이 지점장과 중년 남자는 나에게 질문했다. 지점장과 중년남자는 친분이 있어보였다.

“소매치기한테 지갑을 털렸나요? 실수로 지갑을 잃어버렸나요?”

분실신고 되어 사고 처리된 수표는, 관리비로 지출한 것을, 음식점에서 사용되었고, 음식점에서는 종업원 월급으로 지급했고, 종업원은 수표 입금하다가 수표가 분실수표라는 것을 확인한 후 음식점 주인에게 다시 연락을 했다고 했다. 회사 경리사원은 즉 같은 날 수표를 발행 후, 출장비와 관리비로 같은 날 지출을 했고, 은행직원 은 관리비로 지출되어, 은행에 되돌아 오지 않은 수표번호를 나에게 잘못 가르쳐 준 것이었다.

음식점에서는 간혹수표를 사용하고, 분실수표로 신고하는 사례가 있다며 나를 의심했다. 음식점 사장은 경찰서에 가자고 난리였다.

수표번호를 몰라서 은행 종업원에게 문의해서 수표번호를 추적하고 분실신

고를 했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었다. 수표발행서류를 찬찬히 다시 살펴보았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수표는 두장 더 있었다.

결국 2장의 수표번호를 확인하여 분실신고를 다시 했고, 분실 신고되었던 수표는 사고 해제 처리했다.

분실신고만 하고서 다음 절차가 없다면 얼마의 기간 후에 분실수표는 은행의 소유로 된다고 들었다. 내가 분실했던 수표는 누군가 지갑을 습득했던 사람이 사용했던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은행의 소유가 되었다.

분실 신고 후 신문 공고를 내고 하는 일련의 절차가 너무 번거로워, 분실신고 후 어떤 절차도 밟지 않은 것을 지금은 후회하고 있다.

퇴근 후에 만나자며, 집에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친구는 갑작스럽게 전화를 했다. 꽃다발 하나를 주고서는 자기 불일이 있다며 친구는 다른 행선지로 향했고, 나는 집으로 가는 차를 탔다. 버스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멍하니 바깥을 보면서 집으로 갔다.

하필이면 꽃다발 때문인지 모르지만, 집에 와서야 알았다. 가방속에도 지갑이 없었고,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을 꽃다발 때문에 버스안에 그냥 두고 내렸던 거였다. 꽃다발을 전해준 친구가 너무 원망스러웠다. 지갑은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어느 경찰서 명이 찍혀서 등기로 배달되어 왔다. 지갑속에는 돈이 될만한 것은 하나도 남겨져 있지 않았다. 다른 나라 화폐를 기념으로

넣어 놓았는데 그것까지도 없었다. 하필 지갑속에는 상당액의 현금이 들어 있었는데, 되돌아온 지갑은 텅텅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더 화가 치밀어 올랐다. 다른 사람들은 신분증이 되돌아온 것만 해도 다행이라며 위로해 주었지만 지갑을 잃어버렸을 당시처럼 텅 빈 지갑을 확인했을 때는 가슴이 쓰라렸다.

늦은 시간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그만 꾸벅꾸벅 졸다가 지갑을 버스안에 두고서 집으로 유유히 왔다. 12시 넘는 시간에 전화기를 붙들고 여기저기에 분실신고를 했다. 다음날이 제헌절이라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나를 더 방심하게 했고, 평화로워야 할 연휴전날을 어지러운 꿈 속을 헤매게 했다. 지갑 속에는 만

원 조금 넘는 현금이 들어있었고, 다른 사람의 명함이 들어 있었다. 지갑 분실 후 일주일의 안되었을까 전화가 걸려왔다. 지갑 찾으러 오라는 전화였다. 지갑을 습득한 사람은 용산 전자상가에서 일하는 젊은 사람이었다. 내가 지갑을 찾으러 갔을 때 지갑을 되돌려 주며, 내 지갑속의 현금을 썼다고 그 자리에서 현금을 꺼내 나에게 건네 주었다. 음료수 한박스와 감사하단 말을 남겼다. 지갑을 되찾은 나의 마음은 반가웠지만, 만약 지갑안에 많은 현금이 들어 있었다면 과연 나에게 지갑을 찾으라는 연락이 왔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지갑을 잘 잃어버리는 계절은 여름이다. 뜨거운 여름열기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을 흐트려 놓기 때문인지는 모르

지만, 하여튼 지갑 속에 상당액의 돈이 들어있기만 하면 내 지갑은 나의 손을 떠나곤 했다. 배가 부른 지갑은 되돌아 오지 않거나, 지갑은 훌쩍해서 되돌아오는 특이한 현상이 있었다.

지갑을 잃어버린 후 마음을 잃어버린 것처럼 충격 속에 휩싸인 그때 당시에 난 생각했다. 아! 내가 벌을 받고 있구나. 예상하지 못했던 현금을 손에 들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간다. 지갑의 분실은 나의 부주의함 때문이었으나, 그때 당시 상황을 원망하게 된다. 분실된 지갑은 착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 궁핍함을 달래주는 그때의 윤회유가 되어졌겠지 하며, 되돌아 오지 않은 과거 속의 지갑에 대한 미련을 버린다.

제15회 한기문에 아동부문 우수작

할머니와 술떡

김가영 / 토목기술처 김대중 과장 자녀

할머니가
술떡을
찌 주신다.

대추는
새근새근
잠자고

말랑말랑
폭신한
네모난 떡에

깨들은
대추가 썰까봐
조심조심 속삭이네.



선운사 동백꽃이 맺어준 인연

미당 서정주님의 선운사 시가 담긴 회사 사진반의 출사 공고문에 이끌려 참여한 선운사 동백꽃 여행에서 우리 부부는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사진반 총무였던 남편은 제가 사진반 행사에 참석한 것을 핑계 삼아 이런저런 자료를 주기도 하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처음 만날 때부터 닮은 점이 많았습니다. 우선 동갑이었구요, 당연히 같은 시기에 학교를 다녔고 그래서 생각이 비슷하고, 또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늘 음악이 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곧 바로 오디오부터 작동시킵니다. 거의 잠자기 전까지 계속 음악이 흐르고 있고, 구태여 의자에 앉아 정신을 집중해서 음악을 듣는다고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음악을 즐기는 편이지요. 우리 예쁜 딸 소원씨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음악을 듣고 자라서인지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고, 피아노 치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 저희 가족은 적잖은 긴장감에 쌓여 있습니다. 딸이 올봄에 입학하거든요. 태어난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자라서 학교엘 간답니다. 이번 설, 고모가 선물해준 가방을 메고 즐거워한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대견하고 고맙지만 앞으로 잘 키워야 할 텐데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가족은 시간이 날 때마다 여행을 자주 다닙니다. 그동안 많은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남편 덕분에 소원씨의 예쁜 모습과 추억들을 사진으로 많이 남길 수 있었지요.

올 봄에는 그동안 계획만 세우고 다녀오지 못한 보성의 푸른 차밭과 우리 부부가 처음 만난 선운사의 붉은 동백꽃을 만나러 갈까 합니다. 그래서 소원씨에게 엄마 아빠가 처음 만난 그 곳이라며 보여주고 싶네요.

이경아 / 박성우 과장 부인

우리가족 만세
환경기술실
박성우 과장 가족



'우리가족 만세'는 화목하게 살아가는 직원 가족을 소개하는 난입니다. 주위에 살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아 소개하고 싶은 가족이 있으면 홍보실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호 박성우 과장 가족은 환경기술실 고명숙 차장이 평소 음악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으며 추천해 주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박수근의 작품들

Park Soo Keun



2002년 10월 박수근의 고향 양구군 정림리 생가터에 건립된 박수근미술관의 개관 2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가 3월 31일까지 박수근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일찍 접어드는 겨울에 잎을 다 떨어진 나무들과 추수가 끝나 행하니 비어버린 논이며 스산하게 부는 바람에 젖은 양구는 그의 작품을 닮아 있다. 아니 양구의 이 계절을 박수근이 자신의 작품에 담았을 것이다. 단순한 인물이 회백색의 특유한 질감이 느껴지는 배경에 녹아있는 그림이 먼저 떠올려지는 박수근은 우리 민족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냄으로써 소박한 아름다움을 구현한 서민화가이자 20세기 가장 한국적인 화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미술관 소장품인 유화 '앉아있는 두 남자' '빈 수레' '굴비'를 비롯해 수채화, 크레파스화, 드로잉, 삽화 등 그가 다룬 모든 장르가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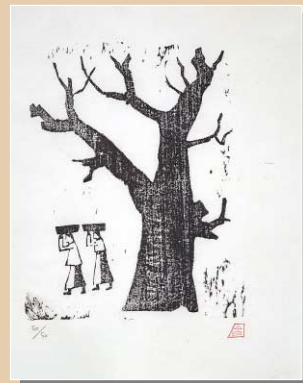
자료 협조 / 박수근미술관(033-480-2655)

朴壽根

굴비



나무와 두 여인



마거 업은 여인



빈 수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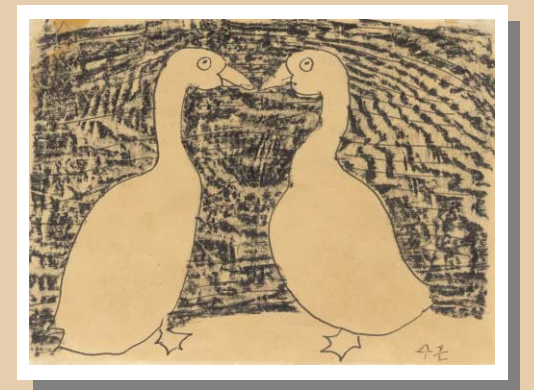
새싹



앉아있는 두 남자



조목북



잠 못 이루는 밤이면

임호준 /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불면의 고통은 사람이 겪는 가장 혹독한 경험 중 하나다. 침대속의 불면인에겐 짹짹 시계 소리가 마치 천둥치는 것 같다. 잠을 청해보려 갖은 애를 쓰다 버럭 화를 내며 침대를 박차고 나와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는 처절함이 매일 밤 이어진다. 그 고통을 도대체 누가 알아줄까. 이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거나, 실제로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불면증은 그 자체가 하나의 병이라기보다 열이나 두통 등과 같은 증상이다. 수없이 많은 원인들 때문에 불면이란 증상이 나타난다. 걱정이나 근심 등 심리적인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때로는 사지운동증, 두통, 그 밖의 통증 등과 같은 신체적 질병이 불면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불면증이 심한 경우엔 수면다원검사 등을 통해 불면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수면다원검사란 8시간 정도 잠을 자게 하며 뇌파와 안구운동, 심전도, 근전도, 호흡, 코골이, 이갈이, 혈중 산소 포화도 등 수면에 영향을 주는 모든 현상을 관찰·측정·판독하는 검사다. 만성 불면증, 수면무호흡증, 사지운동증, 기면병, 악몽 등 초수면장애, 이갈이 등의 병을 진단하는데 유용하다. 대형병원 수면장애센터(곳에 따라 정신과, 호흡기내과 등)에서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50~80만원선이다.

불면증의 유형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는 잠이 들지 못하는 것이며, 둘째는 잠을 자다 중간에 자주 깨는 것, 셋째는 새벽에 잠이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것이다. 이 중 잠이 들지 못하는 유형이 가장 많고, 증상도 가장 심각한데, 이 경우는 스트레스 등 심리적 이유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간에 자주 깨거나 새벽에 깨는 불면증은 신체적인 문제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 코를 심하게 골면서 일시적으로 숨을 쉬지 않는 수면무호흡증이나, 무릎 아래 다리를 주기적으로 떠는 사지운동증 등은 숙면을 방해해 잠에서 자주 깨는 원인이 된다. 잠이 들지 못하는 유형의 만성 불면증은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늪과 같아서 잠을 자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 더 정신이 또렷해지는 게 특징이다. “오늘은 기어코 잠에 들겠다”고 다짐하며 최적의 수면 조건을 갖추고 잠자리에 들지만 갑자기 “이러다 또 잠이 들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초조감이 엄습하면서 자꾸 시계를 쳐다본다. 그러다 보면 어제와 같은 고통의 밤이 오늘도 이어진다.

잠을 자려는 의지는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최대의 위험 인자다. 따라서 “잠이 안오면 억지로 자지는 않겠다”고 결심하고 침대에 눕지 않는 게 불면증 치료의 첫 걸음이다. 사람은 하루 이틀 잠을 자지 않아도 된다. 전날 잠을 못 잤더라도 잠을 보충하려하지 말고, 평상시처럼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 잠이 안 오면 침대에 누워있기보다는 책을 보거나 일을 하는 게 좋다. 그러다 보면 새벽이 가까워지고 다시 초조해지는데, 이때 물러서면 안된다. “그래 이왕 못 잤는데,

오늘도 자지 말자”고 생각하고 느긋하게 마음을 갖는 게 좋다. 그러다 보면 견딜 수 없이 잠이 쏟아지고, 그때 침대에 몸을 누이면 잠들기에 성공할 수 있다.

신체질환 때문에 생긴 불면증이 아니라면 불면증 환자는 규칙적인 생활리듬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퇴직자에게 불면증이 잘 나타나는 것은 취침시간, 기상시간, 식사시간 등 생활리듬이 불규칙하고, 이 때문에 뇌 속의 생체시계가 교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상 규칙적으로 생활하도록 노력하고, 전날 잠을 설쳤다고 낮잠을 오래 자는 것은 좋지 않다.

적당한 운동도 필요하다. 운동은 육체적 피로를 유발해 수면에 빠져드는 것을 도와준다. 그러나 밤늦은 시간 운동을 심하게 하면 인체의 긴장상태를 유지하는 교감신경계가 자극돼 정신이 또렷해지면서 잠을 청하기 어렵다. 밤에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나 목욕을 해도 교감신경계가 자극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미지근한 물로 목욕이나 샤워를 하면 인체를 편안한 휴식상태로 빠져들게 하는 부교감신경계의 세력이 우세해져 잠을 쉽게 청할 수 있다.

술이나 담배, 카페인 음료 역시 교감신경계를 자극하므로 불면증 환자는 조심해야 한다. 잠이 잘 오지 않는다고 수면제를 상습적으로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면제는 습관성과 내성이 있으므로 전문의 처방을 받아 한달 이내만 복용해야 하며, 매일 복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벽시계도 치워 버려야 한다. 침대에 누워 시계를 자꾸 쳐다보면 뇌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아직도 못 잤다”는 패배감과 불안감에 젖게 돼, 헤어날 수 없는 불면의 늪에 빠져든다.

한편 불면증 환자는 보통 사람이 못 느끼는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도 잠을 못 이룰 수 있으므로,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침실의 환경부터 점검해야 한다. 침실 안 가구나 침구의 종류, 벽지의 색깔 같은 수면 환경은 숙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우선 방안의 소음부터 줄여야 한다. 시계가 짹짹거리는 소리, 냉장고가 웅웅거리며 돌아가는 소리, 바람이 창문을 스치는 소리, 차가 쌩쌩거리며 지나가

는 소리, 아파트 복도나 계단으로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 등이 잠을 방해한다. 창에 두꺼운 커튼을 쳐서 소음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아날로그시계는 소리가 나지 않는 디지털시계로 바꾸는 게 좋다. 소음 제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잠들기 전 아주 느린 박자의 배경음악을 타이머로 맞춰 놓고 자면 소음에 정신을 뺏기지 않아 쉽게 잠에 들 수 있다. 이를 마스킹(masking) 효과'라고 한다.

새 집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 향수 등 화장품 냄새, 모기향 등 화학물질 냄새 등도 대뇌피질을 자극해 수면을 방해한다. 자주 환기를 시켜 나쁜 냄새를 제거해야 한다. 침실에 국화, 라벤더, 안개꽃, 아이리스 같은 식물을 갖다 놓으면 나쁜 냄새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국화에는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성분이 있어, 예로부터 ‘국화베개’를 애용해 왔다. 이불은 가급적 자주 햇볕에 말리고, 침대 밑의 먼지도 틈나는 대로 제거해야 한다. 침대 밑에 먼지가 눈처럼 소복하게 쌓여 있는 집이 많은데, 먼지 속의 곰팡이 포자나 집먼지 진드기 등도 숙면을 방해한다. 사람은 하룻밤에 한 겹 정도의 땀을 흘리므로 주말에는 꼭 이불을 햇볕에 말려 보송보송한 상태로 유지해야 숙면할 수 있다.

베개는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너무 폭신하지도, 너무 딱딱하지도 않아야 한다. 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얼굴이 아래쪽으로 5도 정도 기울어지는 높이가 적당하다. 무의식적으로 베개와 머리 사이에 손을 대는 것은 베개가 낮기 때문이며, 똑바로 눕기 힘들고 자꾸 옆으로 누우려 하면 베개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그 밖에 자고 일어나서 목이나 어깨 주변이 결리거나, 자는 동안 베개가 자꾸 밀려나거나, 자는 동안 베개를 자꾸 손으로 바로 놓거나, 코골이가 심한 경우에도 베개가 맞지 않기 때문이므로 이 때는 베개를 바꾸어야 한다. 요나 매트리스는 오래 사용하면 허리가 닿는 부분이 꺼지므로 교체하거나 꺼진 부분에 큰 타월을 깔아 높이를 맞춰야 한다. 벽지나 침대 커버 등은 너무 강렬한 색을 피해야 하며, 안정감이 드는 밝은 색이 좋다. 파스텔 색조는 대체로 무난하다. 커튼과 침대 커버의 색을 통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Radar

원자력통제법 제정 추진

우리나라 원자력 이용에 대한 투명성과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원자력통제법’ (가칭)이 올해 상반기 중 제정된다. 과학기술부는 정부를 포함한 모든 단체 및 개인의 핵무기 개발과 이에 대한 일체의 지원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통제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2월 17일 밝혔다.

한전 탄소배출권으로 돈번다

한전은 2월 21일 마련한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전력산업 대응전략’에서 저개발국 노후 발전소 효율개선 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고 이 배출권을 선진국에 판매하는 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전은 탄소배출권 거래사업을 위해 파리, 뉴욕, 도쿄 사무소를 현지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용 2011년까지 5%로 확대

산업자원부 이희범 장관은 2월 16일 교토의정서 발효와 관련,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현재 2.1%에서 2011년까지 석유, 석탄 등 1차에너지의 5%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를 위해 수소·연료전지, 풍력·태양광 등 상업화가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기부, ‘WWW’ 탄생시킨 유럽입자물리연구소 교류협정 추진

과학기술부가 입자물리학 연구의 메카인 유럽입자물리연

구소(CERN)와 손잡고 고에너지 물리학연구를 본격화하기 위해 협력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월 21일 밝혔다. CERN은 총연장 27km의 세계 최대 입자가속기(LEP)를 보유, 미립자 세계를 규명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인터넷 대중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월드와이드웹(WWW)’을 탄생시킨 곳이다.

한국 핵융합연구장치개발사업에 미국 160만달러 추가 투자

2007년 8월 완성을 목표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차세대 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KSTAR)’에 미국이 올해의 3배가 넘는 160만달러(약 16억6,700만원)를 내년 회계연도(2005년 10월~2006년 4월)에 추가 투자키로 하면서 연구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미국은 2005년도 예산에서 이 사업에 50만 달러를 투입한 바 있다.

특허청·WIPO 국제특허문서 온라인 교환

특허청은 특허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모든 국제특허문서를 온라인으로 교환기로 합의했다고 2월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특허청은 2월 14일부터 WIPO에서 보내는 모든 문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내년부터는 WIPO도 한국 특허청의 모든 국제특허 문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게 된다.

도심에 1MW 규모 태양광발전시설 건설

도심 한복판에 1M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미래전략산업의 하나로 ‘솔라시티(태양에너지의 도시)’를 선언한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도심 한복판에 건설한다고 밝혔다. 1MW 발전용량은 1000가구가 한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국내 최대 용량으로 현재 가동중인 시설로는 경북 칠곡의 200kW급이 가장 크다.

한전 초전도 플라이휠 기술 개발 박차

한국전력이 우주에너지 분야에서 전기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초전도 플라이휠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초전도 플라이휠 기술은 현재의 전기에너지 저장장치인 소규모 배터리 원리를 이용, 우주에 위성을 만들어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저장해 가정으로 가져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양성자 가속기 일상서 응용 ‘활짝’

과거 순수과학을 연구하기 위한 도구에 머물렀던 양성자 가속기가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해 시판에 들어간 ‘이온 주입 이발기’다. 이 이발기(일명 바리깡)의 날은 질소의 음이온을 초속 1,000km로 가속해 스테인리스스틸 조직 안으로 쏘아 넣은 것으로, 과거 티타늄 코팅 수입 날에 비해 강도가 두 배 이상 높은 게 특징이다.

국내 20MeV 수준 양성자 가속장치 완성

우리나라의 양성자 가속기 개발사업은 2002년 7월 과학기술부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의 하나로 시작돼 올해 7월 1단계가 마무리된다. 연구단은 1단계 사업을 통해 20MeV 수준의 양성자 가속장치를 완성했다. 규칙적인 힘

으로 그네를 밀어 높이 올라가도록 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양성자에 일정한 간격으로 힘을 가하는 ‘교류형 가속기’다. 2008년까지 계속되는 2단계 사업에서는 가속기 수준을 60MeV까지 끌어올린 후 2012년 마무리되는 마지막 단계를 통해 100MeV급 장치를 만든다는 게 최종 목표다.

원자력발전소 취수구 해파리떼 제거 장치 개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멈추게 하는 발전소 취수구의 해파리떼를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장치가 개발됐다. 한국해양연구원 이재학 박사팀은 해파리떼의 유입으로 발전소 취수구가 막히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고속스크린 장치’를 개발했다고 2월 4일 밝혔다.

페타이어로 전기 만든다

금호석유화학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페타이어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만든다. 금호그룹 계열 화학기업인 금호석유화학은 1300억원을 투자, 페타이어를 연료로 이용해 총 13만2000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200톤 규모의 보일러 2기를 오는 2007년 6월까지 전남 여수공장에 짓기로 결정, 정부에 인허가를 신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태양광전기 한전에 판매

국내에서도 민간기업에 의한 상업용 태양광발전사업이 시작됐다. 서울미린은 전남 순천에 150kW급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완료해 대규모 전력 판매사업을 시작한다고 2월 10일 밝혔다. 5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는 이 시설은 현재 국내 상용 태양광발전소로서는 가장 큰 규모다.

서클 동정

산우회 시산제 다녀와



산우회는 새해를 맞이하여 그동안 수고했던 유만호 회장과 최준섭 총무에 이어 신임 회장과 총무에 연구소 박만홍 박사와 김광추 과장을 선출하고 지난 2월 19일 강원도 평창군의 계방산으로 시산제를 다녀왔다. 이날에는 많은 눈이 내려 회원들은 겨울 산행의 묘미를 만끽하면서 한해동안의 무사산행을 기원하는 시산제를 올렸다.

스키회 6,7,8차 행사 가저

스키회는 2월 5일, 19일, 26일 각각 대명

리조트와 피닉스파크, 성우리조트에서 6,7,8차 행사를 가졌다. 회원 가족과 함께한 이들 행사에서 회원들은 각기 다른 슬로프의 즐거움을 맛보는 기회를 가졌다.

동우회 동정

전기실업 이사회 개최

동우회가 설립·운영하는 (주)전기실업 제22차 이사회가 지난 2월 1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중국음식점 '중원'에서 최봉기 대표이사 주재로 이사 전원과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10기(2004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안), 제10기(2004년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10기(2004년도) 영업보고서(안), 2005년도 임원보수한도액(안),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10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승인의 결하였다.

한기산동우회 북한산 다녀와

한기산동우회는 지난 1월 22일 북한산으로 창설후 네번째 산행을 다녀왔다. 구파발 인공폭포광장에 모여 북한산성입구, 북한산성매표소, 북한산 계곡, 인수대피소, 하루재, 백운대 매표소, 우이분소 등의 코스를 주파하고, 우이동 우리공순두부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한기산동우회는 매월 넷째주에 등산하며 자세한 사항은 김상탁 총무(011-285-5597, 02-3141-9229)에게 연락하면 된다.

결혼

홍남표 차녀 : 1월 8일 양재동 AT센터
한홍 차남 : 1월 30일 광주 중흥동 천주교회
취임
남궁종규 : 삼성에어엑스기술(주) 사장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90-3 한일빌딩 3층 02-3453-6511)

알립니다



한경대 차장 영결식, 사우장으로 치러

간암으로 투병하다 운명을 달리한 원자력사업관리실 한경대 차장의 영결식이 지난 3월 2일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사우장으로 치러졌다. 고인은 1965년생으로 1992년 입사하여 기술관리처와 원자력사업관리실에서 근무해 왔다.

부음

배관기술처 김대수 과장 부친 : 1월 27일 원주기독병원
전기기술처 박상영 차장 부친 : 2월 4일 분당제생병원
원자력기술처 임채철 차장 모친 : 2월 13일 서울아산병원
전기기술처 김성태 차장 장인 : 2월 14일 전남 보성군
기계설계처 이대희 부장 모친 : 2월 15일 청주 참사랑병원
전기기술처 김기봉 차장 부친 : 2월 24일 대구 허병원
토목기술처 김연중 부장 장모 : 2월 25일 서울 삼성병원

인사동정

상무

김재근 · 품질보증처

차장(책임급)

원성호 · 원자력사업개발처 | 정석한 · 원자로설계개발처
김중성 · 전력기술개발 연구소
유태조 · 원자력기술처 | 김승용 · 전기기술처

방대영 · 배관기술처

김민영, 김동언, 김지만 · 토목기술처
선영주, 박수일 · 건축기술처

과장(책임급)

서영하 · 전력기술개발 연구소 | 이동호 · 정보화추진처
임부택, 최보성 · 기계기술처 | 임호재 · 계속제어기술처

정민구 지음 / 삼성경제연구소

거대 중국과의 대화

21세기 지구촌 공통의 화두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떠오르는 신흥대국인 '중국' 이 아닐까 한다. 중국현대사의 질곡이라 할 수 있는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1966~1976)이라는 암흑기를 지나 부도옹(不倒翁) 덩샤오핑의 실용주의적인 선부론(先富論: 부유할 수 있는 사람부터 부유해져라)과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 검은고양이든 흰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상관없다)을 앞세워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자본주의보다 더 자본주의적인 그들의 독특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통해 그야말로 일찍이 황화론(黃禍論)의 대상이었던 그 실체를 하나씩 드러내고 있다.

세계인의 찬탄과 일면 우려속에 개혁과 개방이라는 양수레바퀴를 굴리며 무서운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루어나가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여러 분야에서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하나씩 획득해가고 있는 중국은 과연 우리에게 독이 될 것인가? 득이 될 것인가? 그들의 경제성장이 그동안의 열등감을 벗어나게 하고 결국은 중화주의에 입각한, 적어도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까? 저자는 이 책에서 현재 중국을 이끌어 가는 오폴리언 리더나 정책입안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냉전의 해체 이후, 동아시아의 리더로서 그리고 제3세계의 대형(大兄)으로서의 역할을 굳혀가고 있는, 현재의 중국이 처해있는 상황을 빚뽀만 아니라 그 그림자도 함께 파악하고자 의도하고 있다. 빈부문제, 지역격차, 실업문제, 부패문제 그리고 정권의 기반인 농촌문제 등 성장가도 아래에서

는 잠재되어 있지만 장단기적으로는 필연적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사항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고 있다. 또한 정치 외교적으로는 일국 양제(一國 兩制)로서 통일의 대상인 타이완 문제, 도전을 허용하지 않고 세계의 지도자임을 자임하고 있는 슈퍼파워인 미국과의 관계설정, 몰락해서 과거의 세력을 형성하지는 못하지만 결코 그 저력을 무시할 수 없는 러시아와 아시아에서 마치 미국의 분신 역할을 하며 맹주 자리를 노리는 일본과의 신경전 등을 분석하고 있다.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한반도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중국의 입장을 파악하고 있다.

이제 한 세대에 걸친 개혁과 개방의 결과, 도광양희(韜光養晦: 재능을 감추고 때를 기다린다)를 지나 유소작위(有所作為: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적극 대처한다)까지 진행된 중국의 힘은 과연 언제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가? 저자는 그 주요한 전환점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0년 상하이 엑스포로 보고 있다. 이 때쯤 되면 비록 팩스-아메리카나(Pax-Americana)에 대응할 만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아시아에서의 팩스-시니카(Pax-Sinica)의 단초는 마련하리라 파악한다.

비단 저자의 분석에 첨언을 하지 않더라도 세계 초강대국들의 세력 각축장이며 그 중에서도 날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최근 중국의 의도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귀중한 대화록이라 판단된다.



윤승욱 / 기술관리처 과장

Movie

마파도

주창민 감독 · 이정진, 이문식 주연



160억을 들고 잠적한 여자를 찾아 모범 건달 재철(이정진)과 비리 형사 충수(이문식)는 낚시꾼으로 위장해 낚선섬 마파도로 잠복근무에 들어간다. 지도에도 없는 작은 섬인 마파도는 섬 전체에 할머니 다섯분(여운계, 김수미, 김을동, 김형자, 길해연)이 공동 생산, 공동 분배, 공동 사역, 공동 소유의 체계로 살아가는 이상한 섬.

20년간 자신들 외에 남자는 커녕 다른 사람은 구경도 못해본 다섯 할머니들은 알고 보니 장난 아니게 힘도 세고 용감무쌍하다. 다음 배가 들어오는 일주일간 오도가도 못하게 된 두 남자를 할머니들은 “하늘에서 소대신 두 남자를 주셨다”며 가공할 내공으로 부려먹기 시작하는데……. 열걸에 고양이 앞의 쥐 신세로 전락해 버린 두 남자는 과연 할머니들의 온갖 유희과 시련을 견뎌내고 돈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Exhibition

2005 새봄 한강 나비축제

3월 7일~27일 선유도공원 한강전시관



새봄을 맞아 다양한 종류의 나비 및 곤충 표본 208종이 선보인다. 표본 전시와 곤충그리기(무료), 곤충 관찰 일지 작성법(무료), 곤충 표본 만들기 체험(재료비 5,000~10,000원), 종이로 곤충 만들기 체험(재료비 1,000원) 등의 체험학습도 함께 펼쳐져 아이들과 지루하지 않게 둘러보기 좋다. 선유도공원은 과거 정수장의 건축 구조물을 재활용한 환경 재생 생태공원으로서 지하철 합정역이나 당산역에서 내려 15분 정도 양화대교를 건너오면 만날 수 있다. 한강 유역의 지질, 수질, 어류·조류·포유류 등 생태계, 문화 유적을 보여주는 한강역사관, 수질정화원, 환경 물놀이터 등의 다채로운 시설로 꾸며져 따로 특별한 전시가 없을 때라도 가족나들이 하기에 알맞다. 황포돛배와 한강수계를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공간과 전망창도 마련돼 있다. 수생식물원에는 수생식물 1만여 포기가 심어져 있다. 문의 02-3780-0590

Performance

뮤지컬열전

3월 18일~내년 2월 동송아트센터 동송홀



지난해 ‘연극열전’의 뒤를 이어 브로드웨이와 오프브로드웨이 작품을 각색한 6편과 창작 뮤지컬 1편으로 구성된 뮤지컬시리즈가 오디뮤지컬컴퍼니에 의해 막을 올린다. 2006년 2월까지 이어질 ‘뮤지컬 장정’의 첫 테이프를 끊을 작품은 ‘년센스 어-멘’. 수녀들이 등장해 코믹한 이야기로 인기를 모았던 ‘년센스’의 ‘남자 버전’이다. 1999년 남경주, 김장섭 등이 출연하여 ‘남센스’라는 이름으로 국내 초연했다. 그 뒤를 이어 5월 미국 인디영화의 대부 로저 코먼 감독의 동명영화를 각색한 ‘리틀 쉘 오브 호러스’가 무대에 오른다. 국내 초연이며 디즈니 뮤지컬의 명콤비 알렌 멘킨과 하워드 애쉬먼이 자신들의 재능을 세상에 알린 작품이다. 세 번째 공연인 ‘어새신스’도 국내 초연. 뉴 뮤지컬의 선두주자 스티븐 손드하임이 작사·작곡을 했다. 미국 대통령을 암살했거나 암살

Cartoon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서울 중구 예장동 남산 기술

서울시가 1999년 5월에 개관한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보고, 각종 만화 관련 자료를 모아놓은 만화의 집,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도서관이라 할 정보실, 국내 최초의 애니메이션 전용관인 ‘서울애니시네마’ 등이 있어 즐거이 시간을 보내기 좋다.

가장 인기가 높은 ‘만화의 집’은 240평 규모로 1층에는 정보실, 2층에 만화전시관이 있다. 만화전시관은 국내 만화의 변천과정을 연대별·시대별로 정리해놓은 만화역사관, 주요 작가의 작품과 소품이 진열된 작가관, 각종 전시행사가 열리는 기획전시관 등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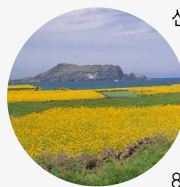
로 구성돼 있다. 이현세의 ‘까치’, 강철수의 ‘발바리’ 등 유명만화 캐릭터들이 한쪽 벽면을 장식하고 군데군데 진열된 ‘로봇태권 V’ 등 캐릭터 인형들이 시선을 끈다.

정보실에는 절반 이상이 만화책인 2만5천권의 장서와 4천여개의 애니메이션이 소장돼 있다. 국내 작품은 물론, 요즘 아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인 ‘유희왕’ 등 일본만화, ‘그리스로마신화’ 등 학습만화에 이르기까지 다 볼 수 있다. 애니메이션도 풍성하지만 부스가 1인용 6개, 2~3인 가족용 3개 정도로 넉넉지않아 주말에는 기다려야 될 때가 많다.

최근 문을 연 서울애니시네마는 203석 규모의 소극장이지만 첨단 영상시설과 디지털 입체음향시설을 갖춘 최신식 영화관이다.

가 볼만한 곳

봄철 꽃 구경



산과 들이 단조로운 색상을 벗어나 버리고 알록달록 붉고 노란 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계절이다. 붉은 꽃송이가 탐스러운 동백꽃, 노란빛이 화사한 산수유·유채꽃·개나리. 난분분 활달리는 벚꽃, 설레는 진홍빛의 진달래, 철쭉 등을 찾아 꽃구경을 떠나보자.

충남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숲은 동백나무가 80여 그루로 수는 적지만 여느 동백숲과는 달리 나무들이 간격을 두고 서있어 풍광이 독특하다. 고창 선운사에는 절을 둘러싸고 5천여 평에 5백~6백년 된 동백나무 3천여 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6백~8백년 된 동백나무 1만여 그루가 울창한 강진 백련사도 동백꽃 관광지로 이름 높다. 산수유는 국내 산수유 생산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구례군 산동면이 유명하다. 이보다는 못하지만 아천 백사면은 서울에서 가까워 찾아가기 좋다. 유채꽃은 역시 제주도다. 성산과 신양 일대, 드라마 촬영 장소로 더 유명한진 섬지코지, 표선면 유채꽃 도로가 유명하지만 3~4월이면 제주 어디에서나 노란빛이 떠날 때가 없다.

개나리는 워낙 흔해 따로 명소가 없는 곳이 없을 만큼 봄의 전령사 역할을 해내는데 특별히 목포 유달산에서는 4월 1일부터 개나리축제가 열린다. 진달래 여행지라면 많은 사람들이 여수 영취산을 최고로 꼽는다. 대구 달성 비슬산 정상에서도 진달래가 만발한 초원을 볼 수 있다. 철쭉은 진달래보다 개화 시기가 한달가량 늦는데 해마다 철쭉제를 개최하는 소백산 국망봉, 진분홍빛 철쭉이 백백이 들어선 지리산 배재봉, 평평한 능선에 만발한 철쭉이 마치 화원을 떠돌리는 덕유산 덕유평전 등이 유명하다. 꽃놀이 하면 제일 먼저 연상되는 벚꽃은 그만큼 이름난 곳도 많다. 호수나 바다를 따라 벚꽃길을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경남 합천호 백리벚꽃길이나 남해도 벚꽃길을 찾아보자. 부산 달맞이길에서도 달빛 아래 빛나는 벚꽃 사이로 연꽃언뜻 바다가 보인다. 전북 전주와 군산 간 47km 도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백리벚꽃길로 유명하다. 시찰 입구의 벚꽃길은 일일이 소개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유난히 꽃송이가 큰 왕벚꽃으로 유명한 계룡산 동화사, 벚꽃터널로 이름난 생계사 십리벚꽃길이 많이 알려져 있다. 장거리 나들이가 어렵다면 여의도 윤중로의 벚꽃길도 꽤나 볼만하다.

틀린 그림 찾기



두개의 그림중에서 다른 부분 7군데를 찾아 독자엽서에 표시해 보내 주세요.

구성 : 권기수

편집자에게

사보의 표지가 멋지게 바뀌었네요. 내용도 흥미롭구요. 이번호는 특히 '웰빙 KOPEC-놀라운 무지개 식탁의 비밀'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다음호에는 직장인들, 아침식사가 많이 거르잖아요.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아침식단 소개 좀 해주세요.

이다훈 /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KOPEC 가족으로서 늘 사보 유익하게 잘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퀴즈 정답을 열심히 적어 보내기는 하는데 어찌 된 것인지 잘 도착하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몇자 적습니다. 첫째 실어주셨으면 하는 내용으로, 요즘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데 은행금리나 보험금리가 너무 작거든요. 올해에 현재 상황에 맞는 재테크 실어주시면 좋겠어요. 또 웰빙, 건강도 관심있거든요. 구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방법도 실어주시면 어떨는지요. 둘째 좋았던 점은요. 한기문예전을 기다리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저는 책을 좋아해서 주로 독후감을 보내는데 한번도 당첨사실은 없지만 그래도 참여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혹시나 하는 맘에 발표일을 설레는 맘으로 기다립니다. 뽀뽀 글 읽다보니 상을 받아 마땅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테마기획-세상속으로' 글과 사진은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가 꼭 가보고 싶은 나라를 먼저 보게 되니 갈 것이라고 꿈을 꾸고 있는 저에게 희망과 도전의식을 심어주네요. 꼭 갈 것입니다. 계속 세계의 멋진 곳을 실어주길 부탁드립니다.

유입분 /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1동

2월호당첨자 및 정답



김종길 / 기계기술처 차장
송남수 / 건축기술처 과장
최상희 / 기술관리처
강유정 / 원자력사업단

독자에게

사보「KOPEC FAMILY」는 KOPEC 가족여러분들(직원, 가족, 협력업체, 유관기관등)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보에 대한 의견이나 실고 싶은 원고가 있거나 새로 사보를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EDMS mai이나 이메일을 이용하여(Webadm@kopec.co.kr, 이원주 leewj@kopec.co.kr 031-289-3194, 한수정 fonei@kopec.co.kr 031-289-3023) 또는 독자엽서를 통해 보내주세요. 퀴즈 한마당에 당첨된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만남

“날씨도 너무 화창했다. 꼬불꼬불 계단을 올라갔다. 아, 달라이라마께서 빙그레 웃으면서 꿈에서 본 모습대로 나를 맞이하기 위해 문밖에 나와 계신 것이 아닌가? 나는 양탄자가 깔린 금 안의 널찍한 방으로 안내되었다. 나는 금 안에 들어가자마자 달라이라마님께 큰절을 올렸다. 그가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나는 한국인으로서 장자에 대한 최상의 존경을 표시한 것이다. 달라이라마께서 꼭 꿈에서처럼 날 손수 일으키시며 자리로 안내했다. 사실 나는 그와 만나게 될 곳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었다. 그런데 우리의 대화의 장소로 택하여진 곳은 나에게서는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인 공간이었다. 텅 빈 곳에 자그마한 서안을 하나 놓고 책상다리를 하고 둘이서 마주보고 앉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크나큰 행운이었다. (중략) 난 달라이라마님께 양해를 구하고 서안 앞으로 바싹 다가갔다. 성하께서 꼭 어린 동생을 가슴에 껴안듯, 가까이 오라고 편하게 손짓하시는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의 대화는 시작되었다.”

-도올 김용옥, 「인도로 가는 길: 달라이라마와 도올의 만남 3」에서-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우리의 만남은 계획도 기대도 의도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면서 '필연'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전생부터 이어져온 현생입니다. 매화, 산수유, 개나리, 목련, 벚꽃, 산당화..... 차디찬 계절을 잘 이겨낸 나무들이 자기만의 꽃을 피워 올립니다. 발길 닿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코끝을 적시는 향기 따라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나도 꽃이 됩니다. 당신은 어떤 만남이 되고 싶습니까?

서정민 / 양전해석처 김교상 부장 부인, 서민